

경희대 사회계열

사회계열 논술 Theory	
1) 1번 문제 풀이	
1-1) 1번 문제 유형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 배점 30점]	
2016 모의 사회	제시문 [가]~[마]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두 가지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2015 사회1	제시문 [가]~[마]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2015 사회2	제시문 [가] ~ [마]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2015 모의 사회	제시문 [가]~[마]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두 가지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2014 사회1	제시문 [가]~[마]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2014 사회 2	제시문 [가] ~ [라]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여 비교 요약하시오.
-> 제시문 네 개 혹은 다섯 개를 두 입장으로 분류한 후 각각 한 문장씩으로 요약하도록 요구하는 문제 [성균관대식 1번 문제 유형]	
1-2) 1번 문제 공략법	
STEP1) 성균관대 1번 문제와 유형이 같다! 따라서 성균관대 1번 문제처럼 풀면 된다!	
성균관대 1번 요약형 문제 유형	
2015 인문 1교시	<제시문 1> - <제시문 5>는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의 유무'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2015 인문 2교시	<제시문 1> - <제시문 5>는 빈곤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2015 인문 3교시	<제시문 1> - <제시문 5>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활동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2015 인문 모의	<제시문 1> ~ <제시문 5>는 '세계화'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성균관대식 요약형 문제에 대한 전형적 답안 구조	
1문단	① 제시문 1 ~ 5는 A를 기준으로 크게 B와 C로 분류할 수 있다.
2문단	① 제시문 1, 2, 3은 B에 속하는 글로서, D라고 보는 입장이다. ② 제시문 4은 E라고 본다.

	③ 제시문 2는 F라고 본다. ④ 제시문 3은 G라고 본다.
3문단	⑤ 제시문 4, 5는 H에 속하는 글로서, I라고 보는 입장이다. ⑥ 제시문 4는 J라고 본다. ⑦ 제시문 5는 K라고 본다.
성균관대식 요약형 문제 우수답안 구조	
1문단	① <제시문 1>~<제시문 5>는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의 유무를 기준으로 크게 '행복 상대주의'와 '행복 보편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2문단	② <제시문 1>, <제시문 3>, <제시문 5>는 '행복 상대주의'를 지지하는 글로서, 행복은 개인의 경험, 의지, 내면 등에 따라 개인마다 그 조건을 달리한다고 본다.
	③ <제시문 1>의 칸트는 개인의 경험과 윤리의식, 정치성향에 따라 행복의 조건이 달라진다고 한다.
	④ <제시문 3>은 행복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개인마다 그 조건이 다르다고 말한다.
	⑤ <제시문 5>의 닉 부이치치는 사람들이 외적 조건을 추구하여 행복을 얻려고 하는 것은 잘 못이라고 말하며,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통해 나온다고 주장한다.
3문단	⑥ <제시문 2>와 <제시문 4>는 '행복 보편주의'를 지지하는 글로서, 행복은 이성 혹은 진화의 결과에 의해 보편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⑦ <제시문 2>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성을 잘 활용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
	⑧ <제시문 4>는 행복이 생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화해온 뇌의 작용에 의한 보편적 쾌락추구의 결과물이라고 본다.
성균관대식 요약형 문제 채점 포인트	
A (25점)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 하고 명칭 (ex. 결정론 vs 도구주의)을 적절히 부여 하였으며,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제시문 간의 미묘한 관점차이까지 고려 하여 잘 기술한 답안
B (20점)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적절한 명칭을 부여하지 못하였거나 부여한 명칭에 감점 요인이 있는 답안
C (15점)	제시문의 분류를 올바로 하고 분류 명칭도 제대로 부여했으나, 각 입장의 핵심 논지에 대한 요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답안
D (10점)	분류는 좋았으나 명칭에 감점 요인이 있고 요약이 잘못된 답안
E (5점)	제시문 분류에 실패하고 서술을 제대로 못한 답안
STEP2) 그렇다면 실제 문제를 한 번 풀어볼까?	
제대로 된 명칭을 부여하고, 각 입장을 잘 분류하고, 한 문장씩으로만 요약하면 된다! 어	

<p>차피 한 문장으로 요약해야하니 글의 첫 문장 혹은 맨 마지막 문장을 먼저 본 후 중간에 혹시 내가 빠뜨린 핵심어가 있지 않은지를 검토하기만 하면 된다.</p>	
<p>2016 경희대 모의 사회계열 논술 1번 문제[2015년 7월 20일 시행]</p>	
<p>제시문 [가]~[마]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두 가지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 배점 30점]</p>	
<p>1) 한 문장 요약 및 기준 찾아내기</p>	
<p>[가]</p>	<p>제시문 내용 (선택과 삭제)</p> <p>땅속에 동굴이 하나 있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동굴 안쪽의 벽면만을 바라보도록 손과 발, 목이 묶여 있다. 그들 뒤에는 동굴 안을 비추어 주는 불빛이 있다. 그들과 불빛 사이에 담장이 세워져 있고, 그 담장 위로 돌이나 나무 등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나 동물이 마치 자동인형처럼 지나가고 있다. 그 인형들은 실제 사람이나 동물처럼 소리를 내기도 한다. 뒤를 돌아볼 수 없도록 묶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생 보아 온 것이 실은 동굴 벽면에 바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은 소리도 그림자가 내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어쩌다가 그들이 묶인 상태에서 풀려나 고개를 돌리고 인형을 본다고 해도 지금까지 보아 온 것이 진짜라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실물 인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을 동굴 밖으로 데려가 지금까지 그들이 동굴 안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면 그들은 큰 충격에 빠질 것이다. 동굴 밖에는 실제 사람들과 동물 등이 살고 있고, 그들이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은 그것들을 본떠 만든 인형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이 동굴 밖의 세계에 점차 익숙해진다면 모든 것의 원인이 태양이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p> <p>이러한 비유에서 동굴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선의 이데아에 의해서 참된 세계가 존재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도 선의 이데아에 대한 앎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p>
	<p>한 문장 요약 [가]에 따르면 동굴 밖 태양처럼 선의 이데아는 참된 세계와 진리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된다.</p>
<p>[나]</p>	<p>제시문 내용 (선택과 삭제)</p> <p>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나는 캄비세스가 완전히 미쳤다고 확신한다. 그가 마치 저 았앗다면 그런 방식으로 종교와 전통을 조롱하지는 았았을 것이다. 만일 모든 인간에게 가장 훌륭한 법률을 골라 보라고 한다면, 각각의 집단은 상당한 고민 끝에 자신들의 관습을 선택할 것이다. 각 집단은 자신의 것을 최선의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미친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자신의 관습을 바꿀지 았을 것이다. 각기 자신의 관습들이 표방하는 의견을 보편적이라 생각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여기서서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다리우스 왕 제위기 때, 왕은 회의에 참석차 와 있던 그리스인들을 초대하고는 그들에게 돈을 얼마나 주면 부친의 시신을 먹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다. 다리우스는 칼라테이로 알려진 인도 부족한 몇 명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부모의 시신을 먹는 풍습이 있었다. 다리우스는 그리스 인들이 보는 앞에서 칼라테이 인들에게 돈을 얼마나 주면 부친</p>

	<p>의 시신을 화장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공포에 휩싸여 울부짖으며 그런 끔찍한 말은 꺼내지도 말아 달라고 애원했다. 그래서 그런 풍속들은 있는 그대로의 관습으로 간직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판다로스가 자신의 시에서, 관습이 모든 것들의 왕이라고 말한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p>
<p>한 문장 요약</p>	<p>[나]에서 각 부족은 자신의 관습이 최선의 것이라고 믿고 다른 관습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주의적 태도를 보인다.</p>
<p>[다]</p>	<p>제시문 내용 (선택과 삭제)</p> <p>텔레비전을 통해 본 안데스 산맥 고산자대 안디오의 생활 스페인 정복자들에 쫓겨 깊은 산 꼭대기로 숨어든 잉카의 후예들 주식이라며 자루에서 꺼내 보이는 잘디잔 감자가 형형색색 종자가 심여 종이다 왜 그렇게 뒤섞여 있느냐고 물으니 이놈은 가뭄에 강하고 이놈은 추위에 강하고 이놈은 벌레에 강하고 그래서 아무리 큰 가뭄이 오고 때아니게 추위가 몰아닥쳐도 망치는 법은 없어 먹을 것은 그래도 건질 수 있다나 전제적인 이 문명의 질주가 스스로도 전멸을 입에 올리는 시대 우리가 다시 가야 할 집은 거기 안디오의 잘디잘은 것이 형형색색 제각각인 씨감자 속에 있었다</p> <p>한 문장 요약</p> <p>[다]는 각각의 장점을 지닌 형형색색의 감자 종자들에 비유해 다양한 문명을 만들어갈 것을 제안 한다.</p>
<p>[라]</p>	<p>제시문 내용 (선택과 삭제)</p> <p>의무론적 윤리설에 따르면, 의무 또는 옳은 행위란 그것이 가져올 좋은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옳은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옳은 행위가 된다. 도덕적 행동의 옳고 그름은 그 행동의 결과의 좋음보다는 형식적인 행위의 규칙과 관련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는 의무, 즉 정직의 의무는 그것이 가져올 어떤 좋은 결과 때문에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직 그 자체가 옳은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옳은 행위가 되고 의무가 된다. 칸트는 인생이 힘써 도달해야 할 목적이 따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대신, 옳은 행위와 그른 행위를 분간함에 표준의 구실을 할 수 있는 도덕 법칙이 주어져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법칙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타당한 절대적 권위를 가졌다고 믿었다. 어느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도덕 법칙을 적용함으로써 간단히 판단된다. 따라서 최초의 근본 문제는 '시대와 지역의 차이</p>

	를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행위의 법칙인 도덕 법칙이 무엇인가'이다.	
	한 문장 요약	[라]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법칙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절대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마]	제시문 내용 (선택과 삭제)	
	Teacher: The painting we're going to look at is more clearly surreal and complicated. It's called Golconda and Magritte completed it in 1953. What is the first thing you notice when you look at this painting? [물음을 통해 궁금증 유도]	
	Student A: My attention goes to the men in the sky. They make it look like a dream.	
	Teacher: That's what most people notice first. Some people view them as falling to the ground like rain, while others imagine them floating. Since Magritte didn't include any sign of movement, he left it to the viewer to decide. Either way, what makes the painting surreal is that men cannot be in the sky against gravity like this. However, these aren't real men. They are only the images of men, so Magritte wanted to show that images don't have to follow any rules of the real world.	
Student B: It also seems unrealistic that all the men look the same. They are all dressed in dark overcoats and hats. Why did Magritte paint them all like that?		
Teacher: Some people believe Magritte did this to show how people in modern society are losing their individuality. He believed people like businessmen and bankers were getting lost in the crowds of people all living the same kind of life. In this and other works, RenéMagritte tried to make fun of this kind of society. Through his works of art and these kinds of ideas behind them, RenéMagritte had a great influence not only on the art of other artists, but also on graphic design, movies, magazines, and even TV commercials. He challenged the common views of what's real and unreal by presenting regular things in an unusual way. He wanted people to question what they see and think about art and the world around them from different points of view. Therefore, there is no single correct way to interpret his printings. It's up to you to decide what you see.		
	한 문장 요약	[마]는 Magritte의 그림을 해석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으며, 사람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2) 기준설정		
기준	진리와 윤리를 판단하는 절대적 관점이 존재하는가	
3) 기준에 따라 대립되는 관점 설정		
절대주의	VS	상대주의
4) 정해진 개요에 따라 답안작성		

경희대 예시답안		
1문단	①	[가] ~ [마]는 진리와 윤리를 판단하는 절대적 관점이 존재하는가'를 기준으로 크게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로 나눌 수 있다.
2문단	②	[가]와 [라]는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입장이다.
	③	[가]에 따르면 동굴 밖 태양처럼 선의 이데아는 참된 세계와 진리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된다.
	④	[라]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법칙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절대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3문단	⑤	한편 제시문 [나], [다], [마]는 개인, 시대, 상황에 따라 이러한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⑥	[나]에서 각 부족은 자신의 관습이 최선의 것이라고 믿고 다른 관습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주의적 태도를 보인다.
	⑦	[다]는 각각의 장점을 지닌形形色색의 감자 종자들에 비유해 다양한 문명을 만들어갈 것을 제안 한다.
	⑧	[마]는 Magritte의 그림을 해석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으며, 사람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2) 2번 문제 풀이	
2-1) 2번 문제 유형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 배점 40점]	
2016 모의 인문	제시문 [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가]~[나]의 논지를 비판하시오.
2015 사회1	제시문 [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다], [라], [마]의 논지를 평가하시오.
2015 사회2	제시문 [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가], [나]를 비판하시오.
2015 모의 사회	제시문 [바]의 논지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가]~[다]의 논지를 비판하시오.
2014 사회1	제시문 [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다]~[마]의 논지를 비판하시오.
->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제시문을 조건화하여 요약한 후 이를 바탕으로 두 개 ~ 세 개의 제시문을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문제 [글자 수만 다를 뿐 경희대 인문계열 2번 문제와 유형이 같음]	
2-2) 1번 문제 공략법	
STEP1) 문제가 항상 요구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이다.	
①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제시문 [바]를 조건화하여 요약하시오.
②	제시문 [가]의 내용을 서술하고, 제시문 [바]의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시오.
③	제시문 [나]의 내용을 서술하고, 제시문 [바]의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시오.
STEP2) 이를 문제가 요구하는 분량인 600자를 바탕으로 구체화시켜보자.	
①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제시문 [바]를 조건화하여 요약하시오. [200자]
②	제시문 [가]의 내용을 서술하고, 제시문 [바]의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시오. [200자]
③	제시문 [나]의 내용을 서술하고, 제시문 [바]의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시오. [200자]
STEP3) 서강대 발표기준에 의하면 수험생의 평균 문장길이는 65~70자이다.	
①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제시문 [바]를 조건화하여 요약하시오. [200자 - 3문장]
②	제시문 [가]의 내용을 서술하고, 제시문 [바]의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시오. [200자 - 3문장]
③	제시문 [나]의 내용을 서술하고, 제시문 [바]의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시오. [200자 - 3문장]
STEP4) 예시답안을 기준으로 한 모범답안 골격의 완성!	
	①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제시문 [바]의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주장 하되, 뒤에서 각 제시문을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바]의 내용을 조건화하시오.
①	② 그에 대한 근거로 [바]의 제시문 내용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시오.
	③ 그에 대한 근거로 [바]의 제시문 내용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시오.

②	①	[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주장하시오.
	②	그에 대한 근거로 [가]의 제시문 내용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시오.
	③	앞에서 조건화한 [바]의 기준을 토대로 [다]의 내용을 평가하시오.
③	①	[나]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주장하시오.
	②	그에 대한 근거로 [나]의 제시문 내용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시오.
	③	앞에서 조건화한 [바]의 기준을 토대로 [라]의 내용을 평가하시오.

STEP5) 그렇다면 실제 문제를 한 번 풀어볼까?

2016 경희대 모의 사회계열 논술 2번 문제 [2015년 7월 20일 시행]

제시문 [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가]~[나]의 논지를 비판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 배점 40점]

제시문 (바)

밀러는 인간이기에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의 경우에는 어떤 결사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이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개개인이 그들의 정당한 몫을 향유하고 적절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지에 대한 합의의 경우에는 구성원들의 소속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반면 지구적 차원에서도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다. 사실 이러한 구분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밀러의 민족성에 대한 강조는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사람들은 결국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구적 차원의 도덕적 요구가 소속감을 이유로 회피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종합하면, 지구적 차원의 정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밀러의 구분이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규범적 요구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밀러는 ‘약한 사해동포주의(weak cosmopolitanism)’를 통해 이러한 비판을 정면으로 돌파할 작정이다. 그가 말하는 약한 사해동포주의는 민족성에 대한 강조가 지구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도덕적 요구와 결코 대립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 제기된 것으로, 민족국가에 기초한 시민적 책임에 대한 강조가 인권과 관련된 지구적 차원의 도덕적 열망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기준들은 반드시 옹호되어야 하고, 최소 기준의 결핍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직접적인 고통의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구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민족성에 기초한 사회정의가 지구적 차원의 인권의 시대에 맞춰 보다 정교해진 것이다.

제시문 독해

밀러는 ‘약한 사해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민족국가에 기초한 시민적 책임과 지구적 차원의 접근이 대립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즉, 제시문 [바]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가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글이다.

※ 경희대 사회계열 2번 문제는 상호보완만 기억하면 된다!	
경희대 사회계열 2번과 경희대 인문계열 2번의 유사성과 차이점	
유사성	차이점
하나의 제시문으로 다른 제시문들을 평가	<p>① 인문계열은 항상 세 개의 제시문을 평가하나 사회계열은 두 개 혹은 세 개의 제시문을 평가해야 한다.</p> <p>② 인문계열은 1101~1200자, 사회계열은 601~700자로 개요가 약간 다르다.</p> <p>③ 인문계열은 1번 문제에서 [가], [나]를 요약 및 비교하게 한 후 2번 문제에서 [바]를 기준으로 하여 [다], [라], [마]를 평가하게 하는 것이므로 1번과 2번이 불연속적이거나, 사회계열은 1번 문제에서 [가]~[마]를 상반되는 두 입장으로 분류하게 한 후 2번 문제에서 [바]를 바탕으로 [가]~[마] 중 두 개 혹은 세 개의 제시문을 평가하도록 요구하므로 연속적이다.</p>
① 연속적인 사회계열 2번 문제는 상호보완을 기억하라!	
1번 문제에서 [가]~[마]의 제시문을 상반되는 두 입장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한다. 2번 문제에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제시문 [바]는 1번 문제의 상반되는 각 입장을 절충하는 내용을 담는다. Ex) 1번 문제의 각 입장 - 내용 중시, 형식 중시 / [바]의 내용 - 내용과 형식 모두 중요	
->	제시문 [바]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가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글이다.
② 1번 문제의 한 입장은 다른 입장이 주장하는 내용을 경시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가능	
[가]	제시문 [가]는 감각을 통해 인지한 세계와 진리는 허상일 뿐이며, 참된 세계와 진리는 구체성을 초월한 보편적 이데아의 세계라고 보고 있다.
비판	-> 절대성만을 강조, 상대성이 결여
[나]	제시문 [나]는 개별 공동체의 관습을 절대시하고 타자의 관습은 용납하지 않는 기계적인 상대주의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개별 공동체는 자신들의 관습이 최선이고 보편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관습을 문제시하지 않는다.
비판	-> 상대성만을 강조, 절대성이 결여
③ 답은 다 나왔다. 각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성만 더하라!	
[가]	제시문 [가]는 감각을 통해 인지한 세계와 진리는 허상일 뿐이며, 참된 세계와 진리는 구체성을 초월한 보편적 이데아의 세계라고 보고 있다.

비판	-> 그러나 보편성은 구체적 시공간이라는 조건 속에서만 발견된다. 민족성에 기초한 사회정의가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좀 더 정교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바]의 견해처럼, 보편성이나 절대성은 구체적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벗어나서 추구될 수 없는 것이다.
[나]	제시문 [나]는 개별 공동체의 관습을 절대시하고 타자의 관습은 용납하지 않는 기계적인 상대주의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개별 공동체는 자신들의 관습이 최선이고 보편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관습을 문제시하지 않는다.
비판	-> 하지만 구체적 관습은 보편적 시각을 확보할 때 인정받을 수 있다. 인간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조건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절대와 상대, 구체와 추상, 특수와 보편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경희대 예시답안		
①	①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제시문 [바]의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주장하되, 뒤에서 각 제시문을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바]의 내용을 조건화시오.
	->	제시문 [바]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가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글이다.
	②	그에 대한 근거로 [바]의 제시문 내용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시오.
	③	그에 대한 근거로 [바]의 제시문 내용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시오.
②	->	밀러는 '약한 사해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민족국가에 기초한 시민적 책임과 지구적 차원의 접근이 대립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제시문 [가], [나]는 각각 비판받을 수 있다.
	①	[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주장하시오.
	②	그에 대한 근거로 [가]의 제시문 내용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시오.
	->	제시문 [가]는 감각을 통해 인지한 세계와 진리는 허상일 뿐이며, 참된 세계와 진리는 구체성을 초월한 보편적 이데아의 세계라고 보고 있다.
③	③	앞에서 조건화한 [바]의 기준을 토대로 [다]의 내용을 평가하시오.
	->	그러나 보편성은 구체적 시공간이라는 조건 속에서만 발견된다. 민족성에 기초한 사회정의가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좀 더 정교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바]의 견해처럼, 보편성이나 절대성은 구체적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벗어나서 추구될 수 없는 것이다.
	①	[나]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주장하시오.
	②	그에 대한 근거로 [나]의 제시문 내용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시오.
->	반면에 제시문 [나]는 개별 공동체의 관습을 절대시하고 타자의 관습은 용납	

		하지 않는 기계적인 상대주의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개별 공동체는 자신들의 관습이 최선이고 보편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관습을 문제시하지 않는다.
	③	앞에서 조건화한 [바]의 기준을 토대로 [라]의 내용을 평가하시오.
	->	하지만 구체적 관습은 보편적 시각을 확보할 때 인정받을 수 있다. 인간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조건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절대와 상대, 구체와 추상, 특수와 보편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문제 1]	제시문 [가]~[마]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1자 이상 ~ 500자 이하 : 배점 30점]
--------	-------------------------------------------------------------------------------

제시문 [가]

3년 간의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애기 부처는 다시 경주 박물관으로 내려가 가족들과 함께 박물관 불상실에 진열되었다. 그런데 이 애기 부처가 그때부터 발가락이 새까맣게 되었다. 나는 이상하다 싶어 소불 선생님께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 대답이 “자네가 몇 시간만 그 앞에 서 있으면 저절로 알게 될 걸세.”라는 것이었다. 소불 선생의 답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나는 말씀대로 무작정 그 앞에 서 보았다. 그리고는 한 시간도 못 되어 알 수 있었다. 진평왕릉에 비하면 너무도 쉬운 문제였다.

경주 박물관의 하루 평균 관람 인원은 2만 명이 넘는다.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 효도 관광, 일본인들의 해외 관광 등으로 항상 만원이다. 심한 경우에는 진열장마다 일렬로 늘어선다. 고등학생들은 ‘재미없는’ 박물관 견학을 진작 제쳐 놓고 밖에서 맴돌지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선생님의 눈이 무서워 마지못해 구경하게 된다. 박물관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재 해설가의 설명은 어렵기만 하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감동이 없다. 돌맹이를 주워 놓은 것이 선사 시대 돌도끼이고, 꺼먼 그릇은 토기이고, 금관이나 금귀고리는 그래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 깨진 기와 쪽은 왜 그리 많이 진열했는지. 인술 선생은 그저 염소 물 듯 “빨리 가자!” 소리만 하고, 모자 쓴 수위 아저씨는 연신 “손대지 마라.”고만 한다. 드디어 마지막 방인 불상실이다. 불상실에 들어서면 어제까지와 달리 한쪽 벽에 불상 세 분이 널찍이 자리를 잡고 있다. 어제까지처럼 답답했던 공간이 아니다. 본래 박물관 진열은 아래야 한다. 그래서 관람객들은 좀 차근차근하게 되는데, 한쪽에 귀여운 애기 부처가 서서 웃고 있다. 아이들어 수군거린다. “재 좀 봐, 재 좀 봐.” 이내 방 안에는 “우와! 귀엽다, 우리 아기 같다.”는 소리도 나온다. “조용하 해!” 선생님의 타이름이 있어도 막무가내다.

연주가 끝나면 박수를 치는 것처럼 귀엽다는 탄성을 억누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선생의 재촉에도 애기 부처가 귀여워 그 자리를 좀처럼 못 떠나는 아이들이 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귀여운 아기를 보면 머리를 쓰다듬어 보고 싶듯이 어떤 아이들은 한번 애기 부처 손이라도 만져 보고 싶으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금줄이 있고, 저쪽엔 모자 쓴 아저씨가 있다. 그래도 뱃심 좋은 아이는 수위 아저씨가 잠시 돌아서면 몰래 뛰어 들어가 슬쩍 만져 보고 얼른 튀어나온다. 그러나 순식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얼굴이나 손까지는 만져 보지 못하고 고작해야 발가락만 손대 보고 만다. 그 개구쟁이 아이들의 손때가 쌓이고 쌓여 애기 부처의 발가락은 이렇게 까맣게 됐다.

한 문장 요약	제시문 [가]는 예술작품 감상에 있어서 해설가의 이론적 설명보다 친밀감이나 오감(촉감)을 통한 감성적 공감에 대상을 이해하는 시발점이 됨을 보여준다.
---------	-------------------------------------------------------------------------------------

제시문 [나]

Today's most successful companies are said to have built relationships with consumers by engaging them in a personal dialogue that responds to their needs. Marketers who've broken through the clutter have done so by connecting with

consumers and, thereby, creating strong emotional bonds with their brands.
 Over the past decade, it has become resoundingly clear that the world is moving from an industrially driven economy where machines are the heroes toward a people-driven economy that puts the consumer in the seat of power. A recent New York Times article says that over the last 50 years the economic base has shifted from production to consumption. It has gravitated from the sphere of rationality to the realm of desire; from the objective to the subjective; to the realm of psychology.

Simple ideas, such as computers, have morphed* from 'technology equipment' into larger, consumer-focused concepts such as 'lifestyle entertainment'. Airplanes are less about transportation vehicles today, and more about 'travel organizations' that can enhance our lives in many ways through their elaborate bonus-point programs.

*morph: 변하다

한 문장 요약	제시문 [나]는 소비자의 기분과 정서에 영향을 끼치는 감성적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와 고객 간의 유대 관계가 강화된다고 설명한다.
----------------	-------------------------------------------------------------------------

제시문 [다]

데카르트(Descartes, R.)는 의심할 여지없이 확실한 지식의 토대를 찾기 위해, 일단 모든 것을 의심해 보는 '방법적 회의(懷疑)'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모든 것을 다 의심하여도 의심하는 사유 행위 자체만은 더 이상 의심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라는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명제를 도출하였다. 이로써 '생각하는 나'는 지식의 확고부동한 토대로 자리하게 되는데, 데카르트는 생각(사유) 행위 중 특히 이성이야말로 확실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 또한 이성적인 통찰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다. 그가 이처럼 이성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은 이성을 통해 얻은 자명한 인식으로부터 여타의 인식들을 논리적으로 추론해 내는 연역적 방법을 학문의 구성 방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자연은 오직 인과적 법칙에 따른 자연적 질서에 따라 유기적으로 구성된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서, 어떠한 존재나 사건도 우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자연의 일부분인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는 자연의 필연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다.

한 문장 요약	제시문 [다]는 이성이 사유의 기초가 되며, 모든 논리적 추론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

제시문 [라]

요즘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더치페이(dutch pay, 각자내기) 문화가 상당히 정착된 편이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아니, 지금도 일부는 여전히) 음식점 계산대 앞에서 서로 음식 값을 내겠다고 밀고 당기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자기가 먹은 음식 값은 응당 자기가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 그런데 한국인들은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늘 네가 한 번 사면 내일은 내가 한 번 사면되기 때문이다. 따져보면 이런 식으로 해도 드는 비용은 더치페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다. 제가 먹은 음식 값을 제가 내는 식이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한국인들 처럼 서로 돌아가면서 음식 값을 내면 그 과정에서 상호유대감이 어느새 싹을 틔우게 된다. 물론 여기서 ‘한턱내기’는 당연히 별도이다. 승진, 당선, 입학, 출산, 사업 성공 등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그 주인공이 ‘한턱’을 ‘내면’ 내는 사람은 내서 기쁘고, 대접받는 사람은 대접을 받아서 기쁘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한 문장 요약 제시문 [라]는 한국인의 밥값내기 행위가 사람들 사이에 상호 유대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치페이와 합리성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제시문 [마]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냉철한 정신’이라는 개념은 의사결정 이론가인 인지과학자들의 시각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정치학이나 경제학뿐 아니라 인지과학·심리학·경영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판단과 의사결정 방식은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모델이다. 예컨대 올리브 오일을 살 경우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어떤 상표를 고를지 숙고할 시간도, 관심도 없을 때 신속한 판단을 내리려고 몇 가지 편법을 취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합리적 판단에 따른다. 이런 생각은 ‘정치를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하는 행동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의사결정의 최근 연구모델들은 사람들의 합리적 판단을 근거로 한다. 다양한 대안들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면을 평가하면서 예상 효용가치를 극대화하는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각 대안들의 서로 다른 면의 효용가치와 그 가치를 확보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합리적인 행위자는 각각의 잠재적 선택지에 따른 비용과 이득을 합쳐보고 확률을 따져본 후에 예상 효용가치와 비교한다. ‘제한된 합리성’ 모델은 정치개혁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합리적 토론을 지켜보고, 현안을 상세하게 분석한 보고서를 읽으며, 신문을 통해 여러 공공정책 현안의 이면에 놓인 사실을 정확히 알려고 애쓰는 냉철한 유권자들이 있을 때 정치개혁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냉철한 머리를 가진 유권자들은 과거의 전례대로 투표하기보다 ‘현안 자체를 평가’하려는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은 후보자의 겉모습보다 그들의 정책을 더 중시하며, 아울러 공식 석상에서의 꾸며낸 행동이나 말실수보다 후보자의 공무 집행 능력을 더 따지는 유권자들이다.

한 문장 요약 제시문 [마]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간은 냉철한 정신을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을 하며, 합리적 유권자를 늘리는 것이 제한된 합리성에 기반한 정치 개혁의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1) 기준설정

기준 인간의 사유와 행동의 준거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2) 기준에 따라 대립되는 관점 설정

이성	VS	감정
----	----	----

3) 정해진 개요에 따라 답안작성

1문단	①	[가] ~ [마]는 ‘인간의 사유와 행동의 준거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크게 ‘감정’을 지지하는 입장과 ‘이성’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	---	------------------------------------------------------------------------------------------

2문단	②	[가], [나], [라]는 '감정'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인간은 감정에 따라 사유하고 행동한다고 말한다.
	③	제시문 [가]는 예술작품 감상에 있어서 해설가의 이론적 설명보다 친밀감이 나 오감(촉감)을 통한 감성적 공감에 대상을 이해하는 시발점이 됨을 보여 준다.
	④	제시문 [나]는 소비자의 기분과 정서에 영향을 끼치는 감성적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와 고객 간의 유대 관계가 강화된다고 설명한다.
	⑤	제시문 [라]는 한국인의 밥값내기 행위가 사람들 사이에 상호 유대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치페이와 합리성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3문단	⑥	[다], [마]는 '이성'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인간은 이성에 따라 사유하고 행동한다고 말한다.
	⑦	제시문 [다]는 이성이 사유의 기초가 되며, 모든 논리적 추론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⑧	제시문 [마]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간은 냉철한 정신을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을 하며, 합리적 유권자를 늘리는 것이 제한된 합리성에 기반한 정치개혁의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문제 2]	제시문 [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다], [라], [마]의 논지를 평가하십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 배점 40점]
---------------	-------------------------------------------------------------------------------------------------

제시문 [바]

바위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가 마음을 잡는다. 질긴 생명력을 볼 수 있어서 경이롭기도 하지만, 주변의 풍광과 어우러져 연출해내고 있는 장관이 더욱더 돋보인다. 90도로 솟구쳐 있는 바위 아래로는 호수가 있고 주변으로는 안개를 머금은 산들이 받쳐주고 있다. ‘멋있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운치에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옥정호(전북 임실군)를 우뚝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정말로 우뚝한 ‘멋’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아니 설명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감동이 밀려드니,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것이 바로 진정한 멋이다.

멋있다는 생각은 기분을 좋아지게 한다. 이외에 즐거움이나 기쁨 그리고 환희와 같은 정서도 마음을 들뜨게 한다. 날이면 날마다 이런 정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기 마련이다. 기분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가도 순식간에 땅바닥으로 추락하니, 문제다. 기분을 가라앉게 하는 정서는 슬픔이라든가, 미움 그리고 질투라든가 시기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마음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상황이 형성되면 곧바로 고개를 치민다.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내키는 대로 불쑥 치미는 정서를 통제할 수가 없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측하기 어려운 기분과 대비되는 것은 이성이다. 이성은 조리가 있고 합리성이 있다. 지성을 바탕으로 원인과 결과가 일목요연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도 있고 통제할 수도 있다. 조절할 수가 있으니 감당하기가 쉽다. 상대방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는 아주 좋은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성을 앞세우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건조해지고 삭막해진다. 합리성과 논리성은 있지만 배려나 존중은 없다. 손익 계산이 너무나 분명해서 이익이 되지 않는 것에는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제시문 [바]는 감정은 삶에 멋을 더하고 즐거움을 주지만 수시로 변하는 속성이 있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힘들고 감정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합리성으로 대변되는 이성은 일관된 인과관계에 근거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나 이성을 앞세울 경우 인간관계를 얼어붙게 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1) [바]로써 [다]~[마]를 비판

[다]	이성적 통찰만이 사유와 도덕적 행위의 기초가 되며, 세상은 우연을 허용치 않는 인과적 법칙에 의존해 움직인다. -> 하지만 이성에 기반한 인과관계만 따지게 되면 결과를 예측하여 이익을 추구하기는 좋지만, 인간관계에서 손익 계산에만 집착한 나머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라]	한국인의 밥값내기 행위가 계산을 바탕으로 한 행위가 아닌데도 더치페이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며, 상호 유대감도 촉발한다. -> 감성에 근거한 행위가 기대하지 않았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 행위 자체는 결과를 예측, 조절할 수 있는 이성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마]	<p>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경우, 고려해야 할 모든 요소를 살필 수는 없지만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통해 의사결정을 한다.</p> <p>-> 하지만 많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겉모습이나 말실수 같은 감성적 요소를 근거로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제한된 합리성' 모델로 유권자의 판단을 충분히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p>
2) 답안작성	
경희대 예시답안	
1문단	<p>제시문 [바]는 감정은 삶에 멋을 더하고 즐거움을 주지만 수시로 변하는 속성이 있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힘들고 감정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반면, 합리성으로 대변되는 이성은 일관된 인과관계에 근거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나 이성을 앞세울 경우 인간관계를 얼어붙게 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주장한다.</p>
2문단	<p>제시문 [다]는 이성적 통찰만이 사유와 도덕적 행위의 기초가 되며, 세상은 우연을 허용치 않는 인과적 법칙에 의존해 움직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성에 기반한 인과관계만 따지게 되면 결과를 예측하여 이익을 추구하기는 좋지만, 인간관계에서 손익 계산에만 집착한 나머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p>
3문단	<p>제시문 [라]는 한국인의 밥값내기 행위가 계산을 바탕으로 한 행위가 아닌데도 더치페이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며, 상호 유대감도 촉발한다고 본다. 이처럼 감성에 근거한 행위가 기대하지 않았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 행위 자체는 결과를 예측, 조절할 수 있는 이성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p>
4문단	<p>제시문 [마]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경우, 고려해야 할 모든 요소를 살필 수는 없지만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통해 의사결정을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많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겉모습이나 말실수 같은 감성적 요소를 근거로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제한된 합리성' 모델로 유권자의 판단을 충분히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p>

[문제 3]

국내 휴대폰 기기 제조업체인 K사는 2015년 판매수익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을 마련하였다.

- (A)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한 해외 진출 및 제품 판매 촉진
- (B) 디자인 혁신을 통한 국내용 신제품 개발
- (C) 기존 국내용 제품의 가격 인하

대안 (A)의 경우 해외 진출을 위해 먼저 외국기업과의 계약을 통한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고, 계약비용으로 17억 원을 지출해야 한다. 이러한 계약비용은 제품 생산과는 별도의 비용으로 분류된다. 또한 대안 (A)와 (B)의 경우에는 제품 출시 전에 먼저 정부의 승인 또는 특허 등록이 필요하며, 대안 (C)의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이나 특허 등록이 필요 없다.

구체적으로 대안 (A)의 경우 해외시장에 판매할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해당 국가인 M정부의 수입 제품 판매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M정부로부터 K사가 제품 판매 승인을 얻을 확률은 90%, 승인이 거부될 확률은 10%이다. M정부의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1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대안 (B)의 경우 소비자의 감각에 맞는 디자인 혁신을 통해 국내용 신제품을 개발한 후, 신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특허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런데 이번 신제품 특허가 특허청에 등록될 확률은 90%이고 등록이 거절될 확률은 10%이다. 특허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에 기업은 20억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와 같이 K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세 가지이며, 각 대안의 결과는 성공과 실패로 나타날 수 있다. K사가 기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정된 각 대안의 성공 및 실패 확률과 추정 수익은 [표 1]과 같다.

[표 1] 정부 승인 또는 특허 등록 후 각 대안의 성공 및 실패 확률 및 수익

대안	정부 승인 또는 특허 등록	성공 확률	실패 확률	성공 수익(원)	실패 수익(원)
(A)	정부 승인 필요	80%	20%	50억	-20억
(B)	특허 등록 필요	70%	30%	40억	-30억
(C)	정부 승인이나 특허 등록 필요 없음	60%	40%	30억	-10억

K사는 세 대안의 기대수익을 비교하여 기대수익이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하려 한다.

	<p>각 대안의 기대수익이 얼마인지 풀이 과정과 함께 제시하시오. 세 대안 중 기대수익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지 구하고, 선택된 최선의 대안을 근거로 제시문 [나]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700자)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 배점 30점]</p>
<p>1. 기대수익 비교</p> <p>(1) 대안 (A) 기대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판매 승인을 얻은 경우의 기대수익을 먼저 계산하여야 한다. 판매승인을 얻은 경우의 기대 수익은 $(50\text{억}) \times (0.8) + (-20\text{억}) \times (0.2) = 36\text{억 원}$</p> <p>판매 승인과 거부 확률을 모두 고려한 대안 (A)의 기대 수익은 $(36\text{억}) \times (0.9) + (-10\text{억}) \times (0.1) - 17\text{억} = 14\text{억 4천만 원}$</p> <p>(2) 대안 (B) 기대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특허 등록을 한 경우의 기대수익을 먼저 계산하여야 한다. 특허 등록을 한 경우의 기대 수익은 $(40\text{억}) \times (0.7) + (-30\text{억}) \times (0.3) = 19\text{억 원}$</p> <p>특허 등록과 거절 확률을 모두 고려한 대안 (B)의 기대 수익은 $(19\text{억}) \times (0.9) + (-20\text{억}) \times (0.1) = 15\text{억 1천만 원}$</p> <p>(3) 대안 (C) 기대 수익은 $(30\text{억}) \times (0.6) + (-10\text{억}) \times (0.4) = 14\text{억 원이다.}$</p> <p>따라서 대안 (B)의 기대수익이 가장 크다.</p> <p>2. 기대수익을 비교했을 때 대안 (B)가 최선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감성 마케팅이 중요함을 밝힌 제시문 (나)의 주장과 부합한다.</p>	

[문제 1]	제시문 [가] ~ [마]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1자 이상 ~ 500자 이하 : 배점 30점]
---------------	---------------------------------------------------------------------------------

제시문 [가]

카스트 제도는 기원전 1,000년경부터 기원전 600년경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카스트 제도 하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및 직업이 엄격히 구분되어 세습되었고, 다른 카스트 간에는 결혼, 식사, 흡연 등을 함께 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카스트 제도는 힌두교의 ‘업보 윤회설’에 의해 정당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인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례로, 힌두 **지참금 관습**은 가족과 친족, 마을 생활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브라만 중심의 사상뿐 아니라 인도 사회와 문화의 밑바탕을 이루는 제도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형적인 제도이다. 카스트 내혼제(內婚制)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는 혼인은 원칙적으로 동등혼(同等婚)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여자를 주는 쪽 집단이 여자를 받는 쪽 집단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불평등 관계는 혼인이 지속되는 동안 각종 의례 때마다 신부 쪽에서 신랑 쪽으로 일방적으로 건네지는 선물들을 통해 물질적으로 표현된다. 지위가 같은 두 친족 집단이 혼인을 한 후 불평등한 관계로 바뀌고 이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브라만의 이상적인 혼인 형태라고 규정한 깡야단 혼인과 밀접히 관련된다. 마누법 전에는 다 큰 딸을 결혼시키지 않은 브라만은 살인과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딸을 받아 주는 사위는 장인이 엄청난 죄를 짓지 않도록 구제해 준 은인이기 때문에 신과 마찬가지로 경배해야 할 대상이 된다. 즉 신랑 쪽 집단은 신부 쪽 집단에겐 은혜를 베푼 우월한 입장에서,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을 뿐 아니라 깡야단과 함께 따라오는 온갖 종류의 선물을 받을 권리도 아울러 갖는 것이다. 따라서 힌두의 결혼식은 가족 친족 집단의 지위와 관계망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기회이다. **지참금은 자기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 위신 등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일 뿐 아니라, 동시에 기존의 위계 서열을 새롭게 평가판단하고 재해석할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기도 하다.** 카스트 집단들 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같은 카스트의 여러 친족 집단들 간의 관계에서 **지참금**이 담당하는 이러한 구조적 기능에 주목한다면, 1980년대 이후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지참금 반대 운동에서 주장하는 남녀 불평등과 여성 차별이라는 분석 틀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 문장 요약	[가]에서는 힌두 지참금 관습으로 맺어진 불평등 관계가 인도 사회의 위계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능한다고 본다.
----------------	--------------------------------------------------------------

제시문 [나]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 뒤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우리 반을 푸른 눈과 갈색 눈 그룹으로 나누도록 하자. 오늘은 푸른 눈을 가진 사람이 낮은 사람이고 갈색 눈을 가진 사람이 높은 사람이야. 갈색 눈을 가진 사람이 푸른 눈을 가진 사람보다 낫다는 거야. 갈색 눈을 가진 사람은 푸른 눈을 가진 사람보다 깨끗해. 그리고 더 교양이 있단다. 갈색 눈을 가진 사람은 푸른 눈을 가진 사람보다 똑똑해. 정말이야. 진짜로 그렇거든.” 갈색 눈의 아이들은 의자에 몸을 더 곧추세우고 앉았다. 푸른 눈의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얼굴을 찡그렸고 불편한 듯 몸을 뒤틀었다. 푸른 눈의 소년 하나가 의자에 철퍼덕 주저앉았다. “네 눈이 무슨 색이지?” 그가 소년에게 물었다. “푸른 색요.” 소년이 대답했다. “너는 교실에서 그렇게 앉으라고 배웠니?” “아니요.” “푸른 눈을 가진 사람은 교실에서 뭘 배웠는지 기억이나 하고 있지?” 그가 학급 아이들에게 물었다.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차린 갈색 눈의 아이들 쪽에서 함창이라도 하듯 “아니요!” 하는 대답이 나왔다. 그 푸른 눈의 소년은 이제 깨끗하게 앉은 채로 손을 책상 위 정중앙에 단정히 포개어 놓았다. 반에서 그와 가장 친한 친구인 갈색 눈의 소년이 그의 근처에 앉아 있었는데, 멀사하고 업신여기는 듯한 눈초리로 그 소년을 바라보았다. 일은 그렇게 빨리 시작되었다.

그날의 규칙을 열거할수록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의 기쁨은 커져 갔고, 푸른 눈을 가진 아이들의 불편함은 늘어났다. 갈색 눈의 아이들은 교실의 분수식 식수대를 평소처럼 사용할 수 있었다. 푸른 눈의 아이들은 종이컵을 사용해야 했다. 갈색 눈의 아이들은 쉬는 시간을 5분 더 가질 수 있었다. 그들은 점심도 먼저 먹으러 갔으며 점심 먹는 줄에 누구랑 같이 설자 선택할 수 있었고, 음식을 더 먹을 수 있었다. 교실 앞쪽에는 갈색 눈의 아이들만 앉을 수 있고, 줄반장도 갈색 눈의 아이들이 맡았다. 푸른 눈의 아이들은 이 중 무엇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일은 그렇게 진행되었다. 갈색 눈의 아이들은 푸른 눈의 급우들을 놀러먹는 데 특별한 즐거움을 느꼈다. 푸른 눈의 아이들을 쉬는 시간에 함께 놀자고 초대할 갈색 눈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가장 인기 있는 아이 중 하나였던 사랑스럽고 총명한 푸른 눈의 소녀는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거의 정신이 분열될 지경이었다. 갑자기 구부정하게 걸기 시작했고 행동이 어색해졌으며, 뭐든 두 번씩 했고 수업을 따라오는데 애를 먹었다. 쉬는 시간에 절망적인 모습으로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어가던 그 소녀는 전날까지만 해도 가장 친한 친구였던 갈색 눈의 소녀가 일부러 뺀 팔에 등을 부딪혔다.

한 문장 요약 [나]는 신체적 특징에 따른 차별로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을 교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직업, 결혼, 학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 2007년 국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에 의하면, 응답자의 92%가 한 가지 이상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들의 고통은 부당한 차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민족 혈통을 지닌 중국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도 유사한 경험을 토로한다. 그 사실에 비추어 보면, 동포라고 할지라도 차별의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같은 민족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는 북한 이탈 주민도 극심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과 중국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만, 북한 사투리라는 언어습관 또는 어주자라는 사실 때문에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중에서는 백인종이나 황인종보다는 짙은 색의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더욱 극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 말부터 이주 노동자가 한국 동료 노동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일부 중소기업의 작업장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하던 폭언·폭행 사건이 최근에는 공공장소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2009년 8월, 시내버스 안에서 술 취한 한국인 남성이 인도인에게 욕설을 퍼부은 사건이 그 예이다. 그러한 일을 내버려 두면 한국 사회도 머지않아 인종 간 폭력이 만연한 사회가

될 것이다.	
한 문장 요약	[다]는 외국인 차별 실태와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경고한다.
제시문 [라]	
<p>In preindustrial societies, social equilibrium was maintained by assigning different tasks to men and women. In their assigned hunting roles, men were frequently away from home for long periods and centered their lives around the responsibility of bringing food to the family. It was functional for women to be assigned domestic roles near the home as subsistence farmers and caretakers of children and households. Once established, this functional division of labor was reproduced in societies throughout the globe. Women may have been farmers in their own right, but they were dependent on men for food and for protection. Women's dependence on men in turn produced a pattern in which male activities and roles came to be more valued than female activities and roles.</p> <p>Similar principles apply to families in contemporary societies. Disruption is minimized, harmony is maximized, and families benefit when spouses assume complementary, specialized, non-overlapping roles. When the husband takes the instrumental role, he is expected to maintain the physical integrity of the family by providing food and shelter and linking the family to the world outside the home. When the wife takes the expressive role, she is expected to cement relationships and provide emotional support and nurturing activities that ensure the household runs smoothly. If too much deviation from these roles occurs, or when there is too much overlap, the family system is propelled into a state of imbalance that can threaten the survival of the family unit.</p>	
한 문장 요약	[라]는 남녀 간 역할의 분화와 불평등 구조가 가족제도의 안정과 유지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시문 [마]	
<p>요즘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창조적이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것이다. [본론은?] 아 두 가지는 상충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대학생들은 임금이 낮고 고용 보장이 안 되는 일자리를 기피한다. 이 때문에 구직자들은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한다. 기업은 젊은이들의 3D(Dirty, Dangerous, Difficult) 업종 기피 현상을 기업 내 투자로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투자 대신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 인력을 쓰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켜 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린다.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반목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임금의 인력을 쓰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 효과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자리 30만 개를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기보다는 현재 우리 기업의 고용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기업이 청년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정규직 일자리를 과감히 늘리는 등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p>	
한 문장 요약	[마]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대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 생활 만족도가 저하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됨을 지적하고 있다.

1) 기준설정			
기준	차별과 불평등을 바라보는 시각		
2) 기준에 따라 대립되는 관점 설정			
	기능론	VS	갈등론
3) 정해진 개요에 따라 답안작성			
1문단	①	[가] ~ [마]는 ‘차별과 불평등을 바라보는 시각’을 기준으로 크게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나눌 수 있다.	
2문단	②	[가], [라]는 ‘기능론’을 지지하는 글로서, 차별과 불평등이 전체 사회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본다.	
	③	[가]에서는 힌두 지참금 관습으로 맺어진 불평등 관계가 인도 사회의 위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능한다고 본다.	
	④	[라]는 남녀 간 역할의 분화와 불평등 구조가 가족제도의 안정과 유지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문단	⑤	[나], [다], [마]는 ‘갈등론’을 지지하는 글로서, 차별과 불평등이 사회 구성원의 상대적 박탈감과 집단 간 갈등, 그리고 사회적 혼란을 유발한다고 본다.	
	⑥	[나]는 신체적 특징에 따른 차별로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을 교실을 통해 보여준다.	
	⑦	[다]는 외국인 차별 실태와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경고한다.	
	⑧	[마]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대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 생활만족도가 저하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됨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 2]	제시문 [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가], [나]를 비판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 배점 40점]
--------	---------------------------------------------------------------------------------------

제시문 [바]	
<p>‘누군가를 만난다’라는 무게감 있는 이 표현에는 그를 하나의 주체로 보고 상대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내가 나뉠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조망하는 것처럼 그도 세상을 보는 존재이며 따라서 그 자체가 목적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 말이다. 이러한 만남은 대칭성과 상대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보며 서로 주체로 인정해 준다. 이것은 난쟁이 던지기 또는 여타 인간이 단순 노리개로 전락하거나 수단화되는 사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성이다. 법정에서 여러 명의 판사가 이런 종류의 전시를 금지한 이유도 인간들이 서로 주체로 대면하며 상대방을 던지기 창이나 그 밖의 물건으로 격하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존엄성을 갖춘 삶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자신들의 의무로 보았기 때문이다. 장터에서 단순히 재미를 위해 난쟁이를 던지는 행위는 전시하는 행위이다. 이때 전시의 성격은 관중 앞에서 무대에 서는 행위와 다르다. 무대에 오른 배우나 곡예사를 관중이 쳐다본다는 사실은 언뜻 보기엔 난쟁이 던지기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존엄성에 아무 위협이 되지 않는다. 왜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난쟁이 던지기에서는 사람들이 난쟁이에게 무슨 행위를 가하는 데 비해 배우나 곡예사는 스스로가 어떤 행위를 한다. 곡예사는 스스로를 내보이는 데 반해 난쟁이는 타인이 그를 내보인다. 달리 표현하자면 쇼윈도에 내놓은 물건처럼 전시되는 것이다. 또 배우나 곡예사는 단순히 사람들 앞에 나서서 걸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기량을 펼쳐 보인다. 그들은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로서 관중 앞에서 어떤 기술을 선보이는 것이다. 그들에게 쏟아지는 사람들의 눈길은 그들의 기량에 감탄하고 능력을 인정하는 눈길이며 그들은 그런 관중에게 적절한 감사의 제스처로 답례한다. 이러한 상호 간의 시선과 몸짓은 쌍방 간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 주는 요소이며, 이것은 만일 관중이 실망과 비난의 신호로 야유를 보내거나 분노나 반감으로 반응한다고 해도 다르지 않다. 이러한 쌍방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자신을 대중 앞에 드러냈다고 해서 전시된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존엄성이 무너졌다고 느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반대로 난쟁이의 경우에는 인간 노리개 또는 색다른 던지기 장난감으로 단지 구경을 당할 뿐이다. 난쟁이는 던져져 공중을 날아가는 동안에 관중에게 아무것도 스스로 보여 주지 않는다. 무언가를 보여 주는 사람은 난쟁이를 던지는 사람이다. 따라서 던져진 난쟁이에 떨어지는 시선은 감탄의 눈길이 아니라 색다르고 진기한 광경에 신기해하는 눈길이다. 여흥의 수단과 물체라는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이 존엄성을 해친다.</p> <p>존엄성을 위협하는 요소는 또 있다. 던지기 대회가 더 재미를 유발하는 것은 단지 누군가를 던지기 때문만이 아니다. 던져지는 사람이 특이한 신체 구조를 가졌다는 점이 더욱 큰 오락 요소가 되는 것이다. 평범한 어린이를 던지는 게임이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오락과 여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사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결함이라고 여겨지는 진기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이 던져진다는 데 있다. 누군가를 던졌는데 그가 우연히 이러한 신체적 결함을 가진 사람이더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난쟁이 멀리 던지기 대회의 핵심은 던져지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것 때문에 난쟁이 던지기가 가진 존엄성의 문제에 잔인성의 문제가 추가된다.</p>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바]는 존엄성을 갖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를 객체가 아닌 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행위가 가해지는 경우에 존엄성이 위협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타인에 의해 주체가 '전시'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체와 타인의 만남이 상호적일 때에는 주체가 전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을 수단이나 사물로 취급하는 것은 존엄성을 해친다고 봅니다. 더욱이 특정한 '결함' 때문에 사람이 타인 앞에 전시되는 것도 존엄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고 말합니다.	
[가]~[나]를 비판	
[바]의 주장이 존엄성을 갖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를 객체가 아닌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기에, 비판의 대상은 [가]의 집단의 우열을 확인하는 수단으로써의 지참금제도와 [나]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차별하는 상황입니다. [기능론, 갈등론은 양 극단의 현실이기에 조화를 이룰 수 없으므로, 새로운 프레임으로 각 제시문을 평가]	
-> [가]는 카스트 제도가 힌두 정신과 인도 사회의 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러나 힌두 지참금 관습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은 자기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 전시되는 도구일 뿐이다. 결혼을 남녀 쌍방 간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 간의 우열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은 여성의 운명을 타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존엄성을 위협하는 일이다. 한편 [나]는 눈 색깔로 학생들을 구별하여 학생들이 차별을 하거나 차별받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개인의 주체성을 박탈하고, 친구들끼리의 상호작용을 가로막는다. 또한 눈 색깔을 신체적 결함으로 만들어 차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답안작성	
1문단	[바]는 존엄성을 갖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를 객체가 아닌 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행위가 가해지는 경우에 존엄성이 위협받는다. 이것은 타인에 의해 주체가 '전시'되는 것이다. 주체와 타인의 만남이 상호적일 때에는 주체가 전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간을 수단이나 사물로 취급하는 것은 존엄성을 해친다. 더욱이 특정한 '결함' 때문에 사람이 타인 앞에 전시되는 것도 존엄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2문단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힌두 지참금 관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가]와 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차별하는 [나]를 비판할 수 있다. [가]는 카스트 제도가 힌두 정신과 인도 사회의 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러나 힌두 지참금 관습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은 자기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 전시되는 도구일 뿐이다. 결혼을 남녀 쌍방 간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 간의 우열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은 여성의 운명을 타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존엄성을 위협하는 일이다.
3문단	한편 [나]는 눈 색깔로 학생들을 구별하여 학생들이 차별을 하거나 차별받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개인의 주체성을 박탈하고, 친구들끼리의 상호작용을 가로막는다. 또한 눈 색깔을 신체적 결함으로 만들어 차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어떤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신규 채용한다고 하자. 채용인원 수 결정시 고려하는 사항은 신규인력의 월급과 업무효율이며 그 수치는 [표 1]과 같다. 이 기업은 전체 신규인력에 대한 월급으로 최대 월 1억2천만 원을 책정해 두고 있으며, 업무량은 최소 월 186단위 이상 성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채용 비율($\frac{\text{정규직 채용인원수}}{\text{비정규직 채용인원수}}$)은 최소 0.1 이상으로 하려고 한다. 한편 이 기업은 비정규직 직장인 1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의 생활만족도는 정규직에 비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표 2]와 같은 답변을 얻었다고 하자.

[표 1] 신규인력 1인당 예상 월급 및 업무효율

분류	월급(백만 원)	업무효율(단위/월)
정규직	4	5
비정규직	2	4

[표 2] 비정규직 생활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수(명)	10	16	34	40
정규직 대비 생활만족도 수준(%)	100	75	50	25

먼저 이 기업이 오직 일자리 창출의 극대화만을 추구한다면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채용 비율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또한 [표 2]에서 얻은 생활만족도의 평균을 토대로 신규인력의 생활만족도 총량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면,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채용 비율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도 구하시오. 이 비율이 일자리 창출의 극대화만을 추구할 때와 비교하여 얼마나 증감하는지 알아보고, 제시문 [마]의 논지를 평가하시오. [수식 및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700자)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 배점 3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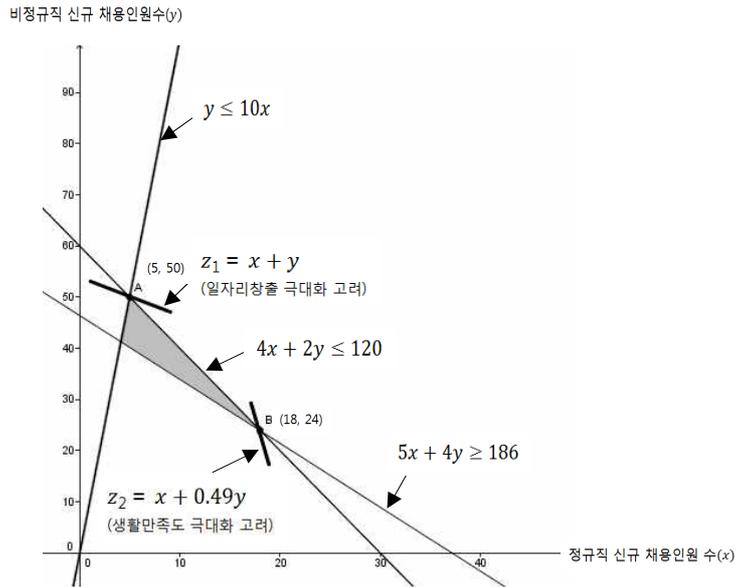
x, y 를 각각 정규직 및 비정규직 신규 채용인원 수라고 할 때, [표1] 등에서 다음 부등식이 도출된다.

(1) 월급 총액 제약: $4x + 2y \leq 120$
(2) 최소 업무 요구량 제약: $5x + 4y \geq 186$
(3)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비율: $\frac{x}{y} \geq \frac{1}{10}$, 즉 $y \leq 10x$

이때 일자리 수의 극대화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위 (1)~(3)의 부등식 영역에서 $x + y$ 의 최댓값을 구하는 것이다. 한편 [표2]로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만족도 평균은 $1 \times 0.10 + 0.75 \times 0.16 + 0.5 \times 0.34 + 0.25 \times 0.40 = 0.49$ 이므로, 생활만족도 총량을 극대화

한다는 것은 같은 영역에서 $x + 0.49y$ 의 최댓값을 구하는 것이다.

이때 도형에 의해 $x + y$ 의 최댓값은 (5,50)일 때이며, $x + 0.49y$ 의 최댓값은 (18,24)일 때이다. 따라서 일자리 수의 극대화만을 추구할 때와 신규인력 생활만족도 총량을 극대화할 때의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비율($\frac{x}{y}$)은 각각 0.1, 0.75로, 0.65(혹은 7.5배)만큼 증가한다.



이는 생활만족도를 고려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한 [마]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The 논술	2015 경희대 모의 사회
---------------	-----------------------

[문제 1]	<p>제시문 [가]~[마]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두 가지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p> <p>[401자 이상 ~ 500자 이하 : 배점 30점]</p>
---------------	-----------------------------------------------------------------------------------------------------

제시문 [가]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은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기에 너무 짧고 소중하다. 다른 사람과 교체하며 이룰 것이 없는 잡담과 사치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에 필요한 여섯 시간에서 여덟 시간 정도를 넘어선 수면을 취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또한 용납될 수 없다. 아직은 프랭클린처럼 “시간은 돈이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아마도 정신적인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시간은 무한히 귀중한 것이다. 왜냐하면 낭비된 모든 시간은 신의 영광에 봉사하는 노동이 상실된 시간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 노동을 희생하고 행해지는 명상이라면 그 역어도 무가치한 것이 되므로 배척해야 할 것이다. 신의 뜻을 따라 직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비해 명상은 신을 만족시키는 정도가 덜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명상을 위한 시간으로 일요일이 있다는 것도 그 이유가 된다. 그러므로 백스터는 직업 생활에서 게으른 사람들은 신을 위한 시간, 즉 직업 노동의 시간이 있음에도 그 시간을 신을 위해 쓰지 않는 사람들과라고 힐난한다. 이처럼 백스터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엄격하고 부단한 육체적·정신적 노동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반복해 강조했다. 백스터의 이러한 가르침에는 두 가지 동기가 함께 작용한다. 우선 노동은 오래 전부터 금욕 수단으로 인정되었으며 또 노동은 그 자체가 신성하다는 것이다. 동양이나 전 세계의 모든 승려 집단에서 지켜지던 규율과는 대조적으로 서양의 교회에서는 노동을 금욕 수단으로 평가해 왔다. 청교도주의에서는 ‘부정한 생활’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한 모든 유혹을 예방하는 특별한 수단으로 노동을 들었다. 이렇게 볼 때 노동의 역할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노동은 신이 정한 삶의 목적 그 자체였다.

한 문장 요약	[가]는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하면서 노동은 금욕의 수단이자 신이 정한 삶의 목적 자체라고 주장한다.
----------------	---------------------------------------------------------

제시문 [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 국민소득의 증대는 곧 경제 성장을 의미하며, 경제가 성장하면 사람들의 생활이 풍족해지기 때문에 경제성장은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경제 성장의 요인에 관심을 기울인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토지, 천연자원, 노동, 자본, 기술 등의 생산 요소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낫 하나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보다 여러 대의 트랙터를 이용해 농사를 지을 경우 생산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처럼 자본과 기술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렇지만 한 나라의 모든 사람이 매일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아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한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행복해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취미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유 또한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삶의 질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한가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더 중요하다. 삶의 질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 혹은 행복감의 정도를 포함하므로 행복에 관한 주관적 관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경제 수준보다는, 행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한 문장 요약	[나]는 여가가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며 경제적 요인만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고 본다.
제시문 [다]	
<p>그리스 시인 안티파트로스는 여성노예를 해방시키고 ‘황금시대’를 되살릴 물레방아가 발명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오, 일꾼들이여, 방아를 돌리던 일손을 놓고 편안하게 잠을 자라. 테메테르 여신은 노예의 노동을 님프들에게 넘기고는 그들이 물레바퀴에서 즐겁게 일하며 뛰노는 모습과 무거운 물레돌이 굴대와 함께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 본다. 우리도 테메테르 여신이 주신 선물을 누리며 게으름을 부리고 즐겁게 살자.”</p> <p>그러나 슬픈 일이다! 시인이 노래한 여가는 오지 않았다. 노동에 대한 맹목적이고 살인적인 열정 때문에, 사람들을 해방시켰던 기계가 자유로운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도구로 바뀌었다. 기계의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졌다. 뜨개질에 능숙한 여성노동자도 1분에 다섯 코밖에 뜨지 못한다. 어떤 기계는 1분에 3만 코나 뜬다. 기계가 작동하는 1분은 여성노동자가 작업하는 100시간에 해당한다. 기계가 1분만 작동하면 여성노동자는 10일 동안 쉴 수 있다. 이는 근대적인 기계를 도입한 다른 모든 산업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기계의 성능과 작업 속도와 정확성이 향상될수록 노동자들은 더 많은 휴식시간을 갖기커녕 마치 기계와 경쟁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노동을 더 열심히 한다. 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살인적인 경쟁인가! 노동자들이 과잉생산에 매달려 자신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종의 바보짓을 함에 따라 이제는 생산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를 확보하고 그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찾아내고, 소비자의 입맛을 자극하고, 소비자가 헛된 욕구를 갖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 생산의 과제가 됐다.</p>	
한 문장 요약	[다]는 기계와 경쟁하기 위해 인간은 더 많이 일해야 하면서도 더 가난해지는 모순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는데, 이는 기계 발전과 함께 인간이 점점 더 노동에 예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시문 [라]	
<p>One of the dangers of modern life is rearing children to be lazy. Living in the suburbs, there are no cows to milk, wood to chop, and gardens to hoe; dishes are done by a dishwasher, clothes are washed by a washer and dried by a drier. Consequently, many young people are reared without good work habits. They are taught to waste their time watching TV, listening to records, and going to recreational outings. Anytime some are told to do something, a howl of protest is registered. Many who have been reared without good work habits have become adults with no ambition, willing to live on welfare. Others hold jobs but have an attitude of “the company owes me a living.” Corporate production is low and the cost of goods increases. Some national woes could be cured by good work habits. Rather than looking at work as if it were a curse from God, we need to understand that it was a part of God’s original plan and will for man. We are privileged to have a job, to be able to earn a living, and to do something productive. One of the methods of punishing the criminal is to put him in a prison where he has nothing to do day after day. This is punishment, not a bed of ease. To be able to work is</p>	

a blessing which God has given to us. We should consider ourselves fortunate that we are not physically or mentally disabled to the point that we cannot have a job.		
한 문장 요약	[라]는 노동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축복이며 노동 없는 삶은 인간을 육체적, 정신적인 불구로 만든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마]		
<p>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을 두 영역으로 나눈다. 즉 한가로움이 아닌 영역과 한가로움의 영역, 쉼 없음과 쉼으로 삶을 구분한 것이다. 쉼 없음과 부자유로서의 노동은 한가로움에 종속되어야 한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유용하고 필요한 것의 바깥에, 즉 일의 바깥에 속한 것으로 본다. 오직 필요만이 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반면 한가로움은 삶의 필요 너머에 놓인, 강요도 걱정도 없는 자유의 공간을 열어준다. 인간 실존의 본질은 근심이 아니라 한가로움이다. 사색적인 평온함은 절대적으로 우선시된다. 노동은 꼭 해결되어야 할 삶의 욕구에 묶여 있다. 노동은 자기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필수적인, 궁지를 뒤집는 생활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노동은 자유인의 품위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노동은 그에게서 자유를 박탈한다. 한가로움은 모든 근심, 모든 궁지, 모든 강제에서 해방된 상태이다. 그 속에서 인간은 바로소 인간이 된다. 한가로움에 대한 고대의 이해에는 일, 효율성, 생산성의 원리 속에 완전히 빠져버린 세계를 사는 오늘의 인간으로서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생의 구상이 깔려 있다. 한가로움을 중시하는 고대의 문화는 지금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염려와 강요를 전제하는 노동의 개념은 후대에 가서야 생겨난 것이다, 그것은 프로테스탄트적 인생관에 근거를 두고 있다.</p>		
한 문장 요약	[마]는 인간이 노동의 강요를 극복하고 한가로운 삶을 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인간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1) 기준설정		
기준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2) 기준에 따라 대립되는 관점 설정		
노동	VS	여유
3) 정해진 개요에 따라 답안작성		
1문단	① [가] ~ [마]는 '행복의 조건'을 기준으로 크게 '노동을 통해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관점'과 '여유로운 삶을 통해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2문단	② [가], [라]는 '노동을 통해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관점'에 속하는 제시문들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노동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③ [가]는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하면서 노동은 금욕의 수단이자 신이 정한 삶의 목적 자체라고 주장한다.	
	④ [라]는 노동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축복이며 노동 없는 삶은 인간을 육체적, 정신적인 불구로 만든다고 주장한다.	

3문단	⑤	[나], [다], [마]는 '여유로운 삶을 통해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관점'에 속하는 제시문들로서 여가를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행복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⑥	[나]는 여가가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며 경제적 요인만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고 본다.
	⑦	[다]는 기계와 경쟁하기 위해 인간은 더 많이 일해야 하면서도 더 가난해지는 모순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는데, 이는 기계 발전과 함께 인간이 점점 더 노동에 예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⑧	[마]는 인간이 노동의 강요를 극복하고 한가로운 삶을 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인간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 2]	제시문 [바]의 논지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가]~[다]의 논지를 비판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 배점 40점]
--------	--------------------------------------------------------------------------

제시문 [바]

인간의 원초적 정체성은 지금은 거의 사라진 장인(匠人)에서 찾을 수 있다. 장인이란 별다른 보상이 없어도 일 자체에서 깊은 보람을 느끼고 별다른 이유 없이도 세심하고 까다롭게 일하는 인간이다. 플라톤은 장인을 ‘어떤 일이든 대충 일하기를 거부하고 최고의 경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러한 원초적 정체성은 놀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놀이와 일, 이 두 가지는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정신분석학자 에릭 에릭슨(Erik Erikson)은 놀이 경험을 장인노동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실험적 작업과 관련지어 파악했다. 남자 아이들이 장난감 벽돌탑을 무너질 때까지 쌓아올리는 놀이를 성적 욕망의 분출이라는 프로이트식 설명에서 찾지 않고, “얼마나 높이 쌓을 수 있을까”를 게임의 규칙으로 잡아 어느 정도까지 쌓을 수 있는지 한계를 시험하는 행위라고 봤다. 마찬가지로 여자 아이들이 인형의 옷을 입혔다 벗겼다 하는 이유도, 하나의 일 거리를 정해서 어떻게 하는지 배우려고 하기 때문일 거라고 추론했다. 아이가 속을 채워 께맨 곰인형의 눈을 잡아 빼는 행위도 적개심의 표현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단단한지 시험해보는 행위라는 것이다. **놀이는 물건을 다루는 기술적 작업이다. 장인이 점토나 유리나 나누는 대화는 바로 이러한 놀이에 근원을 두고 있다. 장인의 일은 놀이를 통한 물건과의 대화에서 아이들이 얻는 배움을 그대로 활용하는 일이다. 그 배움이란 규칙을 준수하는 훈련이요, 또 스스로 규칙을 만들면서 복잡성을 높여가는 일이다. 놀이는 이렇게 성인의 일에 던져주는 의미 또한 크다.**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제시문 [바]는 일(노동)과 놀이(여가)가 대립적이지 않고 분리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인간의 원초적 정체성을 실현한 존재인 장인(匠人)을 제시한다. 장인은 일 자체에서 깊은 보람을 느끼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놀이와 유사합니다. 놀이도 놀이 자체에 집중하며 물건과 대화하며 물건을 다루는 법을 익힙니다. 놀이를 통해 규칙을 지키고 규칙을 만들면서 복잡성을 높여갑니다. 성인의 일도 놀이의 성격을 갖습니다.

[가]~[다]를 비판

-> 제시문 [가]~[다]는 일(노동)과 놀이(여가)를 대립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할 수 있다. 즉, 제시문 [가]는 노동을 금욕의 수단이나 신의 소명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노동을 하는 이유는 인간의 원초적 정체성인 일을 통한 규칙의 발견에 있는 것이지, 금욕의 수단이거나 신의 명령이기 때문은 아니다. 한편 제시문 [나]는 행복의 요건으로 경제적 성취와 여가를 제시하면서, 노동보다는 여가를 즐기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노동과 여가를 구분하고 있다. 제시문 [다]도 인간이 노동에 대해 맹목적인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노동에 점점 더 예속되고 있다고 한탄한다. 이 입장도 노동을 ‘예속, 억압’의 영역으로, 여가를 ‘자유’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답안작성	
1문단	<p>제시문 [바]는 일(노동)과 놀이(여가)가 대립적이지 않고 분리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인간의 원초적 정체성을 실현한 존재인 장인(匠人)을 제시한다. 장인은 일 자체에서 깊은 보람을 느끼며 일하는 사람이다. 이들이 하는 일은 놀이와 유사하다. 놀이도 놀이 자체에 집중하며 물건과 대화하며 물건을 다루는 법을 익힌다. 놀이를 통해 규칙을 지키고 규칙을 만들면서 복잡성을 높여간다. 성인의 일도 놀이의 성격을 갖는다.</p>
2문단	<p>이런 견해를 근거로 했을 때, 제시문 [가]~[다]는 일(노동)과 놀이(여가)를 대립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할 수 있다. 즉, 제시문 [가]는 노동을 금욕의 수단이나 신의 소명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노동을 하는 이유는 인간의 원초적 정체성인 일을 통한 규칙의 발견에 있는 것이지, 금욕의 수단이거나 신의 명령이기 때문은 아니다.</p>
3문단	<p>한편 제시문 [나]는 행복의 요건으로 경제적 성취와 여가를 제시하면서, 노동보다는 여가를 즐기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노동과 여가를 구분하고 있다.</p>
4문단	<p>제시문 [다]도 인간이 노동에 대해 맹목적인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노동에 점점 더 예속되고 있다고 한탄한다. 이 입장도 노동을 '예속, 억압'의 영역으로, 여가를 '자유'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p>

[문제 3]

정규직 근로자인 갑에게 하루 노동의 가치는 10, 하루 여가의 가치는 어떤 유한한 양의 실수인 라고 하자. 연간 노동일수와 연간 여가일수의 합은 365일을 넘을 수 없으며, 이 중 연간 노동일수는 주5일 기준 52주에 법정공휴일이 겹친 13일을 차감한 247일이내여야 한다. 한편 갑의 연간 가처분소득은 2,100만 원인데 이 중 최대 30%까지 노동과 여가를 위해 지출하려고 한다. 이때 하루 노동에 소요되는 지출(교통비, 식비 등)은 1만5천 원, 하루 여가에 소요되는 지출(교통비, 식비, 입장료 등)은 2만 원이다. 갑의 경우 연간 노동일수에 대한 가치와 연간 여가일수에 대한 가치의 합인 연간 총가치의 최댓값이 3,980이었다고 하자. 이때의 값을 구하고, 이를 토대로 갑의 입장에서 제시문 [나]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 배점 3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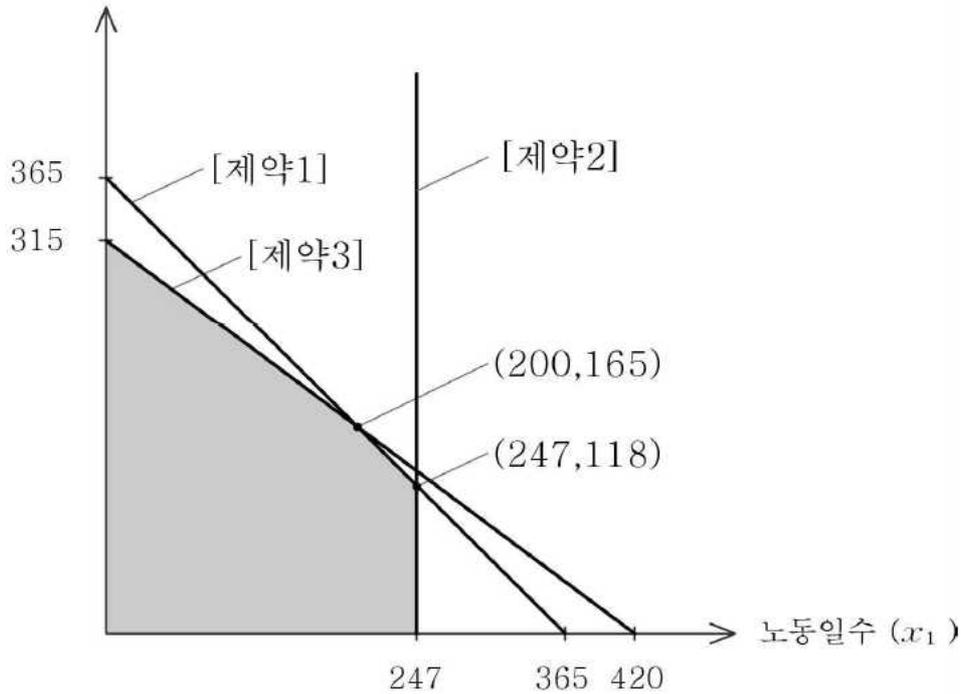
갑이 노동과 여가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는지는 노동의 단위당 가치와 여가의 단위당 가치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비교하면 된다. x_1 을 연간 노동일수, x_2 를 연간 여가일수라고 하고, 하루 노동의 가치와 여가는 각각 10과 V 라고 하자. 그러면 노동과 여가로 인한 연간 총 가치(TV)는 $TV=10x_1 + Vx_2$ 이다.

[제약1] $x_1 + x_2 \leq 365$

[제약2] 연간 최대 노동일수는 247일이므로 $x_1 \leq 247$ 이다.

[제약3] 지출에 대한 제약으로서 $1.5x_1 + 2x_2 \leq 630$ (단위 만원)이다. 그러면 다음 그림과 같은 부등식의 영역이 만들어진다.

여가일수 (x_2)



$TV=10x_1 + Vx_2$, 즉 $x_2 = -\frac{10}{V}x_1 + \frac{TV}{V}$ 에서 $V > 0$ 여서 기울기가 음수여야 함을 고려

할 때 최적해는 (247,118), (200,165), (0,315)을 잇는 선분의 어느 점이 될 것이고, 이 범위 내에서 최댓값이 3,980이 되려면 $TV = 10x_1 + Vx_2 = 3980$ 과 각 점에서 최댓값이 되기 위한 기울기 범위를 고려할 때 (200,165)이 유일하며 이때 $V=12$ 이다. 따라서 갑에게 단위 시간 당 여가의 가치(12)는 노동의 가치(10)보다 더욱 크다. 이런 결과를 근거로 여가의 가치를 노동의 가치보다 더 중시하자는 제시문 [나]의 주장은 갑의 경우 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The 논술	2014 경희대 사회 오전
---------------	-----------------------

[문제 1]	제시문 [가]~[마]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자 이상 ~ 500자 이하 : 배점 30점]
--------	------------------------------------------------------------------------------

제시문 [가]

A사는 디지털 가전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인데, 기존에 이 회사에서 생산되던 LCD TV를 디자인만 바꿔 이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매출을 올렸다. 기술 사양이나 제품의 품질 등 다른 조건은 동일했지만, 경쟁 제품들과 차별화된 디자인과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해서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전자와 △△전자라는 강력한 대기업이 버티고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A사처럼 중소기업 제품이 차별성을 가지려면 기술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인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동물과 다르게 끊임없이 발전을 가속화하고 문화 혁명을 이뤄낸 바탕에는 ‘글’이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경제성장과 발전 속도, 국민들의 삶의 질’ 등을 그 나라의 문맹률로 설명했다. 즉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속도가 느리고 삶의 질이 낮은 이유는 글을 읽을 수 없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보다 이미지를 읽지 못하는 ‘이미지맹’이 더 치명적이다. 이미지는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다른 가치를 담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개인의 삶이나 비즈니스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한 문장 요약	제시문 [가]는 디자인의 변화로 성공한 사례를 통해 형식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	----------------------------------------------

제시문 [나]

우리에게 의자는 그리 익숙한 물건은 아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의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것이 되었다. 바닥에 앉아 낮은 책상 앞에서 공부하던 기억은 그 책상과 더불어 망각의 창고로 이동했고, 그 공간에는 보다 높고 넓은 책상이 의자와 더불어 등장했다. 화장대 앞에도, 침대 옆에도, 거실에도 의자가 있다.

의자는 어떻게 우리 삶의 공간을 그렇게 빨리 에워싸게 되었을까? 아마도 많은 이들이 ‘바닥에 앉는 우리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검증되지 않은 상식을 답으로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이 답만으로 우리의 의문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이 답은 우선 ‘바닥에 앉는 것은 불편하다’라는 인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바닥에 앉는 것을 편안하게 느껴 왔다. 불편했다면 그렇게 오랜 세월을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것은 불편한 것이 되었다. 언제부터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어떤 힘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의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시기는 ‘근대성(modernity)’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공간에 스며들어와 전통적인 것과 만나며 화학반응을 일으키던 시기와 일치한다. 근대성은 과거와의 단절을 외친다. 단절은 과거의 것을 부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것은 과거의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과거 삶의 환경을 구성하던 인공물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이전의 것들에 부정적인 의미의 세례를 베풀고 동시에 새로운 것의 기표에 긍정적인 기의를 채워 넣음으로써 가능했다. 모든 것은 근대성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기호의 영역과 그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뉘었다. 여기에 ‘바닥에 앉는다’라는 전통적인 생활방식은

점차 '불편함', '근대적이지 못함'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획득했고, 그 자리를 '편리함', '근대적임'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의자에 앉는다'라는 생활방식이 차지하기 시작했다. 근대성이 스며드는 공간에서 의자는 근대성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담은 하나의 기호로 소비되었던 것이다. 우리의 삶의 공간에 의자가 성공적으로 입성한 것은 의자의 기호적 성격과 관계가 있다.

한 문장 요약 제시문 [나]는 '의자'라는 형식의 도입이 근대성의 상징이 되면서 전통적 생활방식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인 것으로 바꾸었다고 지적한다.

제시문 [다]

Have you ever been inside a Hall of Mirrors at an amusement park? Have you ever seen your reflection in one of the mirrors there? [일반적 예시] They're funny and quite different from the reflection you see in your bathroom mirror. Now think about yourself as a person. When you do this, it's like looking in a mirror. Actually, you can imagine yourself in two kinds of mirrors. We will call them "the social mirror" and "the true mirror."

In the social mirror, you see yourself according to others' opinions. It can lead you to compare yourself with others. Looking in the social mirror, you may think that rich people are happier than you. You may also think that celebrities are more attractive than you. On the other hand, looking in the true mirror, you can focus on yourself. It shows your own beauty and potential. If you look into the true mirror, you can see yourself more positively. Many teens pay too much attention to what other people and the media say. This can lead to unhappiness for two reasons. First, other people's opinions can change easily according to the situation. These opinions do not usually come from deep thought. Second, what you see in the media is often not true.

한 문장 요약 제시문 [다]는 외부에 비춰지는 나보다는 실제의 나에 집중할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

제시문 [라]

누구나 육체적인 아름다움은 인간의 장점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은 교욱 덕택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세상이 선의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외모 지상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평하게 사람을 판단하고, 상대방의 외모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자동적인 반응만은 억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은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소망 충족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보십시오. 매력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와, 매력적이지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이 보이는 반응에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희들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펌블턴 대학의 학칙에는 윤리 행동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 중인 학칙 개정안의 골자는, 모든 재학생이 의무적으로 칼리아그노시아*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정안의 제출을 촉발한 것은 <비지주 Visage>안경의 발매입니다. 이 안경을 쓰고 사람들을 보면, 아예 상대방에 대한 미추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 칼리아그노시아(calliagnosia): 실미증(失美症). 미(美)를 뜻하는 접두사 calli-와 실인증(失認症)을 의미하는 agnosia를 결합한 조어. 실인증이란 지각 기능이 정상인데도 시각이

나 청각 자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증세를 가리킨다.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얼굴 실인증 등을 포함한다.

한 문장 요약 제시문 [라]도 미추를 판단할 수 없는 장치를 도입한다는 상상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 장점과 상관없는 외모지상주의를 극복할 것을 제안한다.

제시문 [마]

언제부터인가 와인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왔다. [일반적 예시] 소주, 맥주, 양주만이 술의 전부라고 알고 있던 우리에게 어느 날 소개된 와인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친숙한’ 술이 되었다. 처음에는 대기업 CEO, 외국유학파, 인텔리 계층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와인 문화가 어느새 남녀노소가 즐기는 대중문화가 되었다. 와인 열풍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다들 마시고 있는데 나만 마시지 않으면 트렌드에 뒤떨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타인의 시선’이 갖는 힘, 즉 이웃이 하면 나도 하고 싶다는 관념이 개입되어 있다. ‘타인의 시선’이 개인의 기호를 바꿔놓은 것이다. 타인과의 일치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와인을 통해 충족된 일치의 욕구는 원활한 사교 생활의 촉매제가 된다.**

한 문장 요약 제시문 [마]는 최근의 와인 열풍이 자발적 취향이 아닌, 타인의 시선과 일치의 욕구라는 외부적 요인에서 촉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1) 기존설정

기존	형식이 중요한가 내용이 중요한가
-----------	-------------------

2) 기준에 따라 대립되는 관점 설정

형식	VS	내용
----	----	----

3) 정해진 개요에 따라 답안작성

1문단	①	[가] ~ [마]는 ‘형식이 중요한가 내용이 중요한가’를 기준으로 크게 ‘형식’을 지지하는 입장과 ‘내용’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②	[가], [나], [마] 는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문단	③	제시문 [가]는 디자인의 변화로 성공한 사례를 통해 형식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④	제시문 [나]는 ‘의자’라는 형식의 도입이 근대성의 상징이 되면서 전통적 생활방식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인 것으로 바꾸었다고 지적한다.
	⑤	제시문 [마]도 최근의 와인 열풍이 자발적 취향이 아닌, 타인의 시선과 일치의 욕구라는 외부적 요인에서 촉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3문단	⑥	반면, 제시문 [다], [라]는 내용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⑦	제시문 [다]는 외부에 비춰지는 나보다는 실제의 나에 집중할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
	⑧	제시문 [라]도 미추를 판단할 수 없는 장치를 도입한다는 상상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 장점과 상관없는 외모지상주의를 극복할 것을 제안한다.

[문제 2]	제시문 [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다]~[마]의 논지를 비판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 배점 40점]
--------	------------------------------------------------------------------------------------------

제시문 [바]

내가 이렇게 화두를 들듯이 이름에 고심하는 건 이름이야말로 곧 의미 지향의 핵심을 말한마디에 담아내는 선언이자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름에 대한 관심 때문인지 길거리의 상호나 단체의 명칭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본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톡톡 튀는 이름이 많다. 우리 밑을 재료로 하는 어느 국수가게 이름은 ‘우리면 사무소’이다. 이름과 뜻을 알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수원에서 작은 마을 운동을 하는 지인이 만든 골목잡지 이름은 ‘사이다’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상시키면서 청량한 이미지도 떠올리게 하는 참신한 이름이다. 웃음과 희망을 주려는 작명가의 고심과 마음 씀이 전해져서 흐뭇한 미소가 피어난다.

한편 걸 이름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자신들의 거짓 속내를 감추려고 하는 이름도 있다. 법정 스님이 국토에 대한 무례라고 일갈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친환경 물길 잇기’라고 포장했다. 얼마 전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실소를 자아내는 표지를 보았다. “저는 클린디자이너 000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깨끗한 화장실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청소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켜 주고 따뜻한 눈길과 사랑이 오가는 문화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영어로 이름을 바꾸어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했다는 착시효과를 노리는 어쭙잖은 속셈은 그만두었으면 한다. 우리 사회가 자꾸 이름과 이미지, 감성으로 대중을 속이고 자본과 권력을 독식하려는 교묘한 의도에 나는 거듭 분노한다.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제시문 [바]는 실질을 바꾸지 않고 이름만 바꾸어 착시효과를 노리는 최근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채우지 못하는 형식도 문제이고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문제입니다. 형식과 내용이 명실상부하게 상호 충족되고 서로 부합될 때라야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써 [다]~[마]를 비판

	외부에 비춰지는 나(social mirrors)보다는 실재의 나(true mirrors)에 집중할 때 더 행복해 질 수 있다.
[다]	-> 제시문 [다]의 경우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true mirrors)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외부에서 인식하는 나 역시 또 다른 나이자 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임에 분명하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며 타자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절대적인 나’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시문 [다]는 지나치게 단순한 인간 이해이다.
[라]	미추(美醜)를 판단할 수 없는 장치를 도입한다는 상상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 장점과 상관없는 외모지상주의를 극복할 것을 제안한다. -> 제시문 [라]도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기술과 제도를 이용해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칼리아그노시아 조치가 미와 추에 대한 인간의 감각을 일시적으로 무디게 할 수 있으나, 육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까지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마]	와인 소비라는 형식을 타인들과 공유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와인을 통해 충족된 일치의 욕구는 사교생활의 촉매제가 된다.
	-> 제시문 [마]는 자신의 취향을 오직 타인의 시선에 맞추고자 하는 강박관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내적 성찰과 주체적인 판단 없이 세계가 만들어 놓은 질서에 순응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의 온전한 삶의 완성은 불가능하다.
답안작성	
1문단	제시문 [바]는 실질을 바꾸지 않고 이름만 바꾸어 착시효과를 노리는 최근의 사태를 비판하고 있다. 내용을 채우지 못하는 형식도 문제이고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문제이다. 형식과 내용이 명실상부하게 상호 충족되고 서로 부합될 때 따라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2문단	이런 점에서 볼 때 제시문 [다]~[마]는 각각 문제를 안고 있다. 제시문 [다]의 경우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true mirrors)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외부에서 인식하는 나 역시 또 다른 나이자 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임에 분명하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며 타자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절대적인 나'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시문 [다]는 지나치게 단순한 인간 이해이다.
3문단	제시문 [라]도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기술과 제도를 이용해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칼리아그노시아 조치가 미와 추에 대한 인간의 감각을 일시적으로 무디게 할 수 있으나, 육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까지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4문단	한편 제시문 [마]는 자신의 취향을 오직 타인의 시선에 맞추고자 하는 강박관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내적 성찰과 주체적인 판단 없이 세계가 만들어 놓은 질서에 순응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의 온전한 삶의 완성은 불가능하다.

아래 [표 1]은 각 계층별로 100명을 조사하여 얻은 주류 선호에 관한 자료이다. 그런데 와인과 맥주에 대한 상류층과 중산층의 선호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지만 세 계층의 와인 선호 평균은 20이었으며 분산은 최솟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2]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류선호에 따른 구입 확률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아래 표를 이용하여 와인을 소비하는 상류층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였을 때 와인을 선호하는 사람일 확률을 구하고, 이를 근거로 제시문 [마]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 배점 30점]

[문제 3]

[표 1] 소득 수준에 따른 주류 선호 (단위: 명)

	와인선호	맥주선호	소주선호	합계
상류층	x	p	15	100
중산층	y	q	30	100
저소득층	10	30	60	100

[표 2] 주류 선호에 따른 구입 확률 (단위: %)

	와인소비	맥주소비	소주소비	합계
와인선호자	50	30	20	100
맥주선호자	30	60	10	100
소주선호자	5	35	60	100

상류층 와인선호 비율(x)과 중산층 와인 선호 비율(y)은 계층별 와인 선호 비율의 평균식 $\frac{x+y+10}{3} = 20$ 을 만족하고, 분산을 나타내는 $\frac{(x-20)^2 + (y-20)^2 + (10-20)^2}{2}$ 의 최솟값을 갖는다. 앞의 분산식은 x 와 y 가 동일한 값을 가질 때 최소가 된다. 그러므로 평균식을 만족하는 x 와 y 는 동일하게 25%이다.

다음으로 상류층이면서 와인을 소비하는 경우는 와인 선호자뿐만 아니라 맥주 선호자와 소주 선호자일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상류층에서 와인을 소비하는 경우는 상류층 와인 선호자, 상류층 맥주 선호자, 상류층 소주 선호자가 와인을 소비하는 것이다.

경우	확률
상류층 와인 선호자가 와인 소비	$25 \times 50 = 1250$
상류층 맥주 선호자가 와인 소비	$60 \times 30 = 1800$
상류층 소주 선호자가 와인 소비	$15 \times 5 = 75$

따라서 상류층 와인 소비자가 와인을 선호할 확률은 $1250 / (1250 + 1800 + 75) = 1250 / 3125 = 0.4$ 이다. 즉 상류층 와인 소비자가 와인을 선호할 확률은 40%이며, 상류층의 와인 소비는 선호에 비해 더 많이 소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 [마]의 주장인 와인 열풍은 자발적 취향보다는 타인의 시선과 일치하려는 욕구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과 부합한다.

The 논술	2014 경희대 사회 오후
---------------	-----------------------

[문제 1]	제시문 [가] ~ [라]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여 비교 요약 하시오. [401자 이상 ~ 500자 이하 : 배점 30점]
---------------	-----------------------------------------------------------------------------

제시문 [가]

개인들의 상호작용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가 있다. 천지만물이 어떠한 형태라도 가지기 위해서는 사랑과 미움, 즉 당기고 밀치는 힘이 있어야 하듯이, 사회 역시 특정한 형태를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조화와 불일치, 제휴와 경쟁, 바람직한 경향과 달갑지 못한 경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불일치가 결코 사회적 부담이나 부정적인 사실인 것만은 아니다. 현실의 사회는 긍정적인 힘에서만 그리고 오직 부정적인 힘이 긍정적인 힘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회는 두 가지 범주의 이들 상호작용 모두의 결과이다. **얼마간의 알력, 내적 차이와 외적 다름은 집단을 결속시키는 요소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역할은 사회분화와 계층이 명확하고, 그 순도가 면밀하게 유지되어 온 사회구조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 문장 요약	[가]에서 갈등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한 형식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이며, 사회체계 내에서 집단의식을 강화하고 사회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능한다.
----------------	----------------------------------------------------------------------------------

제시문 [나]

달빛과 그림자의 경계로 서서
 담장을 보았다
**집 안과 밖의 경계인 담장에
 화분이 있고
 꽃의 전생과 내생 사이에 국화가 피었다**
 저 꽃은 왜 흙의 공중섬에 피어 있을까
 해안가 철책에 초병의 귀로 매달린 돌처럼
 도둑의 침입을 경보하기 위한 장치인가
**내 것과 내 것 아님의 경계를 나눈 자가
 행인들에게 시위하는 완곡한 깃발인가
 집의 안과 밖이 꽃의 향기를 흠향하려
 건배하는 순간인가**

한 문장 요약	제시문 [나]는 경계의 양쪽은 적대적이거나 배타적인 두 세력이 아니라 상호 의존성을 지니고 협업을 통해 새로운 것(꽃)을 창출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으로 말한다.
----------------	--------------------------------------------------------------------------------------------

제시문 [다]

국책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든, 세대 간 갈등이든 혹은 계층·이념·노사 간 갈등이든 모든 사회적 갈등은 곧 경제적 손실로 나타나게 된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최대 246조원이나 된다는 분석도 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는 “사회갈등지수가 지금보다 10%만 낮아져더라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8 ~ 5.4% 높아지고 OECD 평균수준으로

만 개선되더라도 GDP가 7 ~ 21%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갈등을 얼마나 해소하고 관리하느냐가 선진국 진입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연구소의 어떤 수석연구원은 “국책 사업으로 인한 갈등은 일단 벌어지면 사후적 수습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문장 요약	제시문 [다]는 모든 사회갈등이 경제적 손실임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

제시문 [라]

When class distinctions have disappeared and all production has been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a vast association of the whole nation, the public power will lose its political character. Political power, properly so-called, is merely the organized power of one class for oppressing another. If the proletariat during its contest with the bourgeoisie is compelled, by the force of circumstances, to organize itself as a class, if, by means of a revolution, it makes itself the ruling class and thereby sweeps away by force the old conditions of production, it will have swept away the conditions for the existence of class antagonisms and of classes generally, and will thereby have abolished its own supremacy as a class. **In place of the bourgeois society, with its classes and class antagonisms, we shall have an association, in which the free development of each is the condition for the free development of all.**

한 문장 요약	제시문 [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간 적대관계가 혁명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면 사회 갈등이 소멸될 것으로 본다.
----------------	----------------------------------------------------------------------------------

1) 기준설정

기준	사회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
-----------	----------------

2) 기준에 따라 대립되는 관점 설정

기능론	VS	갈등론
-----	----	-----

3) 정해진 개요에 따라 답안작성

1문단	①	제시문 [가] ~ [라]는 ‘사회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을 기준으로 크게 ‘갈등론’을 지지하는 입장과 ‘기능론’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2문단	②	[가], [나]는 ‘기능론’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사회 갈등은 사회의 기본 구성 요소이며 사회체제에 긍정적으로 기능한다고 본다.
	③	[가]에서 갈등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한 형식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이며, 사회체제 내에서 집단의를 강화하고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능한다.
	④	제시문 [나]는 경계의 양쪽은 적대적이거나 배타적인 두 세력이 아니라 상호 의존성을 지니고 협업을 통해 새로운 것(꽃)을 창출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으로 말한다.

3문단	⑥	[다], [라]는 '갈등론'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사회 갈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궁극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을 드러낸다.
	⑦	제시문 [다]는 모든 사회갈등이 경제적 손실임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⑧	제시문 [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간 적대관계가 혁명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면 사회 갈등이 소멸될 것으로 본다.

[문제 2]	한국사회에서 지역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로 지역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 처리장, 화장장,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과 같은 혐오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나타난다. 제시문 [마], [바]의 논지를 근거로 혐오 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의 해결 방안 및 한계점을 논하시오. [70자 이상 ~ 800자 이하 : 배점 40점]
---------------	-----------------------------------------------------------------------------------------------------------------------------------------------------------------------------------------------------------

제시문 [마]

강아지는 어미에게 꼬리를 치며 아양을 떨고, 애완용 개는 먹을 것을 원할 때 온갖 아양을 떨면서 식사중인 주인의 주의를 끌려고 한다. [예시] 사람도 때때로 동료에게 이러한 수법을 쓴다. 동료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을 때 그는 상대방의 호의를 얻기 위해 온갖 비굴한 아첨을 다 한다. 그러나 사람은 항상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 문명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무수한 사람들의 협력과 원조를 필요로 하지만 평생에 몇 사람의 호의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 거의 모든 동물은 성장하면 완전히 독립하며, 자연 상태에서 다른 동물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동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동료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기대다. 오히려 동료들의 이기심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그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우리가 서로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을 교환하는 것은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다.**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혐오 시설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의 해결을 위해 제시문 [마]는 이익 배분을 통한 갈등 조정을 주장합니다. 제시문 [마]에 의하면, 이해 당사자들이 혐오 시설의 설치로 발생하는 이익과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시문 [마]에 기반한 갈등 해결 대책은 금전적 이득을 노린 특정인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조장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역 공동체가 지향하는 공공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과 관용의 정신을 배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제시문 [바]

오늘날 한국사회의 갈등 극복과 통합 증진은 국가나 사회의 어느 일방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밑으로부터의 거버넌스, 다시 말해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주민 운동, 환경 운동, 지역 사회경제 운동, 소수자 운동 등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에 비해,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는 정치과정에 직접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한다. 시민참여의 기본 단위로 읍·면·동부터 시·군·구, 전국 단위까지 각각 포럼(공론장)을 구성하여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 아래로부터 위로 전달되는 하의상달 체계를 이루도록 한다.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는 심의 민주주의 이론의 뒷받침을 받으며 지방자치에서 실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존 대의 정치제도에서는 정치 엘리트들이 특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선거 경쟁에서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심의 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심사숙의를 통해 스스로 정책이슈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대의제도가 갖는 참여의 제한성을 풀고,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시민 참여의 확대와 포럼 참여 주체의 대표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이 평등주의적 관계를 유지하고 제한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사회적 학습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그 결과 시민들의 요구가 더 잘 반영된 정당성을 갖춘 합의안

이 도출될 수 있고, 시민들이 갈등 사안을 둘러싼 결정을 더 잘 수용할 수 있다.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제시문 [바]는 주민 참여 확대와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지역 갈등의 해결을 위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별로 포럼을 구성하고, 숙의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참가자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제시문 [바]의 심의 민주주의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공론장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지역 갈등의 지리적 범위가 커지면 이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문가 등 제 3자의 조정이 없다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문단	혐오 시설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의 해결을 위해 제시문 [마]는 이익 배분을 통한 갈등 조정을, 제시문 [바]는 주민 참여 확대와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2문단	제시문 [마]에 의하면, 이해 당사자들이 혐오 시설의 설치로 발생하는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혐오 시설이 설치되어 지역 주민의 자산 가치가 하락할 경우 주민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거나 세금 감면, 일자리 제공 등의 간접 보상 대책이 갈등 해결에 효과적이다.
4문단	그러나 제시문 [마]에 기반한 갈등 해결 대책은 금전적 이득을 노린 특정인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조장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역 공동체가 지향하는 공공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과 관용의 정신을 배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없다.
3문단	한편, 제시문 [바]는 지역 갈등의 해결을 위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별로 포럼을 구성하고, 숙의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참가자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한다.
5문단	그러나 제시문 [바]의 심의 민주주의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공론장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지역 갈등의 지리적 범위가 커지면 이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전문가 등 제 3자의 조정이 없다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문제 3]	<p>○○시와 △△공단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함께 KTX신축역사(驛舍) 및 지하차도를 건설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시는 46억원, △△공단은 376억원의 공사(工事)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다. 다음은 공사에 관한 참고 사항이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항목</th> <th style="width: 33%;">지하차도</th> <th style="width: 33%;">신축역사</th> </tr> </thead> <tbody> <tr> <td>당초 사업 목표</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 m</td> <td style="text-align: center;">9,240 m²</td> </tr> <tr> <td>단위 당 공사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0.4억원/m</td> <td style="text-align: center;">0.04억원/m²</td> </tr> <tr> <td>공사비 부담</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와 △△공단이 항상 절반씩 부담</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단이 전담</td> </tr> </tbody> </table>	항목	지하차도	신축역사	당초 사업 목표	200 m	9,240 m ²	단위 당 공사비	0.4억원/m	0.04억원/m ²	공사비 부담	○○시와 △△공단이 항상 절반씩 부담	△△공단이 전담	<p>만약 당초 사업 목표에 미달된 상태로 공사를 마무리하면 사회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미달된 분량에 대해 지하차도의 경우 1.5억원/m, 신축역사의 경우 0.25억원/m²씩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단이 내부사정을 이유로 이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자 ○○시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려고 한다. 이에 정부의 갈등조정협의회는 당초 사업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두 공공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자는 조정안을 구상 중이다. 물론 지하차도든 신축역사든 당초 사업 목표를 초과하는 공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완공할 지하차도의 길이와 신축역사 면적을 각각 얼마로 하는 조정안이 총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현재처럼 사업을 포기하려는 경우보다 총지출 측면에서 얼마나 개선되는지 풀이과정과 함께 제시하시오. 그리고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제시문 [다]의 요지를 평가하시오. [401자 이상 ~ 500자 이하 : 배점 30점]</p> <p>*총지출 = 지하차도 공사 목표 미달로 인한 경제적 손실 + 신축역사 공사 목표 미달로 인한 경제적 손실 + ○○시가 지출한 공사비 + △△공단이 지출한 공사비</p>
항목	지하차도	신축역사												
당초 사업 목표	200 m	9,240 m ²												
단위 당 공사비	0.4억원/m	0.04억원/m ²												
공사비 부담	○○시와 △△공단이 항상 절반씩 부담	△△공단이 전담												
<p>X_1은 지하차도 길이(단위 m), X_2는 신축역사 면적(단위 m²)이라고 하자. 먼저 제약식은 $0.2X_1 \leq 46$ (○○시 예산 제약), $0.2X_1 + 0.04X_2 \leq 376$ (△△공단 예산제약), $X_1 \leq 200$ (지하차도 공사 한계), $X_2 \leq 9240$ (신축역사 공사 한계)이다.</p> <p>공사비 지출은 ○○시가 $0.2X_1$, △△공단이 $0.2X_1 + 0.04X_2$이며, 사회갈등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지하차도의 경우 $1.5(200 - X_1)$, 신축역사의 경우 $0.25(9240 - X_2)$이므로, 총지출은 $2610 - 1.1X_1 - 0.21X_2$이고 총지출을 최소화하는 최적해는 (200m, 8400m²)이다. 한편, 착공 전인 현재의 총지출은 2610억원이므로 정부의 조정안으로 경제적 손실을 1984억원 절감할 수 있다. 이는 (1)갈등을 경제적 손실로 본다는 점과 (2)정부에 의한 갈등 조정이 경제적 손실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제시문 [다]의 요지에 부합한다.</p>														